

# 문제은행

국어영역 | 현대시

## 정답과 해설



책 속의 가접 별책 (특허 제 0557442호)

- '정답과 해설'은 본책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유통 과정에서 분리될 수 있으나 파본이 아닌 정상제품입니다.
- 표지에 사용된 코팅액에는 항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비상교육

## 기본 거산호 2 / 동해 바다-후포에서

본문 20~21쪽

1 ② 2 ⑤ 3 ④

개념 확인 문제 1 본받아야 2 자연 친화적, 성찰적(반성적)

**개념 연계 개념 1 화자와 시적 상황** : 작품에는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시적 대상에 대해 어떤 정서와 태도를 지니는지가 드러나 있다. (가)는 산을 바라보며 세속적인 인간 세상을 벗어나 자연에 동화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고, (나)는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처럼 포용하는 삶의 자세를 추구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자연물의 속성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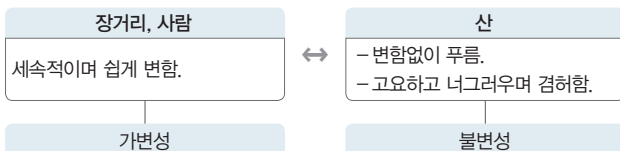
### 가 김관식, '거산호(居山好) 2'

**[해제]** 이 작품은 세속적 공간인 '장거리'와 탈속적 공간인 '산'을 대조하여 자연에 동화되어 살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산'은 세속적이며 쉽게 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장거리', '사람'과 달리 영원하고 변함없는 모습을 유지하고, 고요함과 너그름, 겸허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 화자는 이와 같은 산의 긍정적 덕성을 본받아 산에서 욕심 없이 살다가 죽음의 순간에 산의 품으로 돌아가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산과 더불어 살고 싶은 소망, 자연과 동화된 삶

**[작품 핵심 보기]**

• 시어의 대조적 의미



### 나 신경림, '동해 바다-후포에서'

**[해제]** 이 작품은 '동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화자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있다. 여기서 '동해 바다'는 타인을 원망하며 웅크리게 살아온 화자를 뒤돌아보게 하는 공간으로 자아 성찰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경복 울진에 있는 작은 항구인 후포에서 동해 바다를 보며 그 속성을 통해 타인에게 엄격하고 웅크렸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동해 바다처럼 타인에게는 넓고 포용력 있고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작품은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평범한 일을 소재로 하여 자신의 잘못을 내적으로 엄격하게 다스리려는 성찰의 자세가 잘 드러나 있다.

**[주제]** 동해 바다를 보며 깨달은 성숙한 삶의 자세

**[작품 핵심 보기]**

• 자연물을 통한 성찰



1 (가)에는 '산'에서 고요함, 너그름, 겸허함과 같은 인격적 속성을 발견하고 이를 배우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으며, (나)에는 '동해 바다'에서 너그름, 엄격함과 같은 인격적 속

성을 발견하고 이에 비추어 자신을 성찰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산에 대한 예찬을 통해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고, (나)에는 동해 바다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자세가 나타나 있다. 따라서 (가)와 (나)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전망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의 속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나 있을 뿐, 자연의 변화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

④ (가)는 처분한 어조로 자연과 동화된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고백적 어조로 과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애상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⑤ (나)에서는 '-다', '-까'와 같은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지만, (가)에는 동일한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2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는 산에 대한 애정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삶의 모습을 잘 보여 주는 시구이다. <보기>에서 작가는 가난과 병마 속에서도 결코 비굴하지 않은 당당한 기상으로 세상에 맞섰다고 하였으므로, 이 시구가 생활에서 오는 고통으로 힘겨운 화자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장거리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것은 속세와 거리를 두고 자연을 지향하고자 하는 화자의 뜻을 잘 보여 준다. 이는 세속적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화자의 의지가 담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② '태고로부터 푸르려 온 산', '겸허한 산'은 타고난 품성을 변함없이 유지해 오고 있는 '산'에 대한 화자의 예찬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는 '산'처럼 타고난 품성을 지켜 나가고자 하는 화자의 삶의 태도를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는 화자가 지향하는 자연에 동화된 삶, 즉 순일한 삶을 감각적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나)에서 시상의 전환은 화자가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게 되는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영탄적 표현은 주로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를 이용하여 슬픔이나 기쁨, 감동 등과 같은 감정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나)에는 사용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연의 2~3행에서는 '티끌'만 한 정도의 잘못이 '맷방석', '동산'만 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는 점층적 표현을 통해 타인의 잘못에는 더욱 엄격해지는 인간사의 한 단면을 구체화하고 있다.

② 1연의 5행에서는 '남에게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의 대조적인 시구를 통해 세상사에 대한 화자의 통찰을 나타내고 있다.

③ 2연의 2~4행에서 '넙따란 바다처럼', '깊고 질푸른 바다처럼'이라는 직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엄격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타인에게 너그러운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⑤ 2연의 2~4행에서는 '~ 바다처럼 ~ 수는 없을까'와 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2연의 5~6행에서는 '~은 /는 ~로 ~면서'와 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나)는 이와 같이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동해 바다'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다.

## 심화 **녹을 닦으며-공초 14 / 땅끝**

본문 22~23쪽

1 ⑤ 2 ③ 3 ④

**개념 연계** **개념 1 화자와 시적 상황** : 작품에서는 시적 상황에 대해 화자의 태도나 대응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가)의 화자는 대문의 '녹'을 닦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지나온 삶을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있고, (나)의 화자는 '땅끝'에서 있는 위태롭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삶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대응 방식에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7가 허형만, '녹을 닦으며-공초(供草) 14'

**[해제]** 이 작품은 65편으로 이루어진 연작시 '공초' 중 한 편으로, 과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녹'은 삶의 부끄러운 자취와 행적을 의미한다. 화자는 대문의 녹을 닦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과거를 돌아보고 회한으로 가득한 지난 삶을 반성하고 있다.

**[주제]** 회한으로 가득한 삶에 대한 반성

**[작품 핵심 보기]**

• '녹'을 닦는 행위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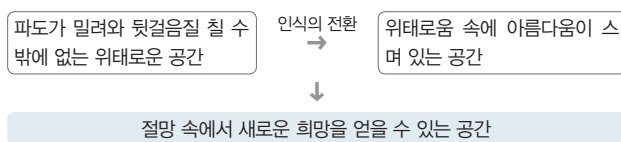
### 나 나희덕, '땅끝'

**[해제]** 이 작품은 전라남도 해남의 실제 지명이자 인생의 끝이라는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는 '땅끝'이라는 중의적 표현을 통해 절박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되는 삶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땅끝'은 시작과 끝의 경계라는 점에서 일종의 극한 상황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화자는 이러한 공간에서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역설적 인식에 도달하게 되고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고 있다.

**[주제]** 절망의 순간에 발견한 삶의 희망

**[작품 핵심 보기]**

• '땅끝'의 의미



**1** (가)는 삶의 부끄러운 자취와 행적을 상징하는 '녹'을 닦는 행위를 통해 지난 삶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절망적이고 위태로운 상황을 상징하는 '땅끝'에서의 깨달음을 통해 절망의 순간에 발견한 삶의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가)는 독백적 어조로 회한의 지난 삶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어조의 전환이 나타나 있지 않다. (나)는 2연과 3연에서 각각 '그러나'와 '그런데'의 접속 부사를 기준으로 사상이 전환될 뿐, 어조를 바꾸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지 않다.
- (가)와 (나)에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으나, 두 개 이상의 감각적 이미지가 결합된 공감각적 이미지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 반어적 표현은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제와 반대되는 뜻으로 말하는 것인데, (가)와 (나)에는 모두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④ (가)는 화자의 행위 속에서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나 공간의 이동이나 정서 변화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나)는 과거와 현재의 교차를 통해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2** <보기>를 고려할 때, [C]의 '회한의 슬픈 역사'는 역사 앞에서 돌아본 화자의 부끄러운 삶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회한의 슬픈 역사'는 '바다 위에서 /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빗방울'로 형상화되고 있는데, 이는 '바다'로 상징되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휩쓸리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으로 버틴 화자의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C]는 역사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화자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답 풀이**

- 화자는 '흑갈빛 대문의 녹'을 닦으며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고 있다.
- 화자는 자신의 지나온 생애에 슬어 있는 '녹'을 닦으며 부끄럽고 죄스러워 손이 아린 줄 몰랐다고 하고 있다. 이는 지나온 생애에 대한 화자의 자책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불면의 축수'는 시대적 현실을 고민하며 잠 못 이루었던 화자의 지나온 생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철없이 울먹였던 뽀얀 사랑'은 순수했던 화자의 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불면의 축수'와 '뽀얀 사랑'까지 칙칙하게 녹이 되어 슬어 있다는 것은 고뇌로 점철된 '마흔세 해'의 인생과 순수한 '사랑'이 더럽혀졌음을 감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온몸으로 온몸으로' 문지르는 행위는 단순히 대문의 녹을 닦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녹을 닦는 행위로 확장되면서, 회한으로 가득한 삶에 대한 치열한 자기반성을 나타내고 있다.

**3** 2연의 '뒷걸음질'은 위태롭고 절박한 현실의 상황에서 화자가 삶에 대한 애착 때문에 취하는 소극적인 행동으로, 참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③ 1연에서 화자는 어린 시절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기 위해 그네를 타고, 2연에서는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노을'은 화자가 동경했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1연의 '그네'를 타는 행위와 2연의 '땅끝'을 찾아가는 행위는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1연에서 '노을'은 '어둠'으로 인해 사라지고, 2연에서 '땅끝'은 '파도'로 인해 위태롭다. 따라서 1연의 '어둠'은 '아름다움'의 시간적 경계를, 2연의 '파도'는 '아름다움'의 공간적 경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3연에서 화자는 '파도'가 위협하고 있는 '땅끝'을 보고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고 인식한다. 화자는 늘 젖어 있는 땅끝이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이를 통해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느끼는 절망감을 극복하고 있다.

### 지식 더하기

#### 공초

'공초(供草)'는 조선 시대 형사 사건에서 죄인을 신문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다. 죄인을 신문하는 것을 취초(取招), 자백을 받는 것을 봉초(奉招), 두 번 이상 신문하는 것을 갱초(更招), 신문에 대해 구술로 답변한 것을 공사(供辭)라 하고, 죄인에 대한 신문·답변을 통틀어 '공초'라 한다. '녹을 닦으며-공초 14'에서 '공초'는 전봉준의 '공초' 기록을 뜻하는데, 이는 억압적인 봉건 정부와 외세의 침략에 대항한 민중의 투쟁의 역사가 담겨 있는 기록이다.

## 기본 바위 / 슬픔이 기쁨에게

본문 24~25쪽

1 ④ 2 ⑤ 3 ④

개념 확인 문제 1 단호한, 단정적 2 슬픔, 기쁨

**개념 연계 개념 2 어조에 따른 시의 분위기** : 화자는 시적 상황에 대한 자신의 정서와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일정한 어조를 활용한다. (가)는 단호한 어조로 인간의 유한성을 초극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노래하고 있고, (나)는 단정적 어조로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감정을 나타내는 시어나 서술어의 종결 어미 등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가 유치환, '바위'

**[해제]** 이 작품은 바위를 소재로 하여 현실 초극적인 삶의 태도를 추구하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바위'는 내적인 감정이나 외부의 시련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의지적 삶의 표상이다. 화자는 이러한 바위처럼 내·외부의 어떠한 자극에도 흔들림이 없는 존재가 되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치열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1행은 작품 전체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마지막 행에서 유사한 형태로 변형, 반복되면서 수미 상관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의 의지적 태도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주제]** 현실 초극적인 삶의 추구

**[작품 핵심 보기]**

• '바위'의 상징적 의미

바위		화자가 염원하는 현실 초극적인 삶의 자세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 관물
내적인 감정과 외부의 시련에 흔들리지 않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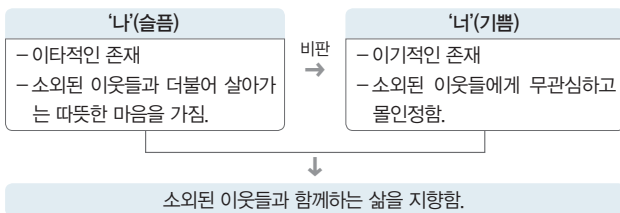
### 나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해제]** 이 작품은 추상적 존재를 의인화하여 '슬픔'을 화자로, '기쁨'을 청자로 설정하고 있다. 화자는 '슬픔'과 '기쁨'의 역설적 인식을 통해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소외된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는 진정한 '슬픔'의 가치를 깨닫고, 소외된 자들의 고통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삶의 추구

**[작품 핵심 보기]**

•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



1 (가)는 '바위'와 같이 현실 초극적인 삶의 태도를 추구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으며, (나)는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

을 외면하는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세태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 (가)는 단호한 어조로, (나)는 단정적인 어조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을 뿐, 어조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가)에는 바위를 통해 화자가 염원하는 현실 초극적인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으나, (나)에는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활용되지 않았다.
- (가)는 현실 초극적인 삶을 추구하는 화자의 의지가 독백적 어조로 드러나고 있다. (나)는 청자인 '너'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나, 단정적 어조를 통해 친근감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가)는 감정이나 외부의 시련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화자의 내면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나)는 '할머니'와 '동사자'와 같은 외부 대상의 묘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화자 개인의 내면을 묘사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구름'과 '원뢰(遠雷)'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뒤바뀌는 속성이 있으므로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것, 외부의 변화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구름은 흘러가고 있고 우레도 멀리 있다. 따라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극의 상태이므로 '흐르는 구름'과 '머먼 원뢰(遠雷)'는 시간에서 벗어나 영원의 상태임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바위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외적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 화자는 '바위가 되리라'고 노래하면서 '영원하고 완전한 무(無)'인 하무에 다다르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애련(愛憐)'은 '사랑과 연민'을 의미하고 '희로(喜怒)'는 '기쁨과 노여움'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인간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므로 '애련(愛憐)'에 물들지 않고 / '희로(喜怒)'에 움직이지 않고'는 인간의 일상성에서 벗어나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적인 단련 과정을 거쳐 고통을 감내하려는 화자의 자세를 형상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드디어 생명(生命)도 망각(忘却)하고'는 시간적 존재인 인간이 시간에서 벗어나 모든 것로부터 초연해진 상태를 나타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3 '함박눈'은 '떨고 있는 할머니'나 '동사자'에게 닥치는 시련이나 고통을 상징하므로 도시의 냉혹함을 함축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봄눈들'은 '함박눈'과 달리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애정, 따뜻함을 의미하는 시어이다.

**오답 풀이**

- '떨고 있는 할머니'와 '동사자'는 도시의 소외된 이웃들이므로 산업화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너'가 할머니에게 곱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는 일은 타인의 고통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 공감은 대상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볼 때 생기는 감정이다. 따라서 '슬픔의 평등한 얼굴'은 도시민들의 삶의 아픔에 대한 공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나'는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너'에게 '슬픔'과 '기다림'을 주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너'가 진정한 슬픔과 기다림의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따라서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는 '너'가 이웃들과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나'의 의지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심화 가을의 기도 / 파꽃길

본문 26~27쪽

1 ③ 2 ④ 3 ④

**개념 연계** **개념 2 어조에 따른 시의 분위기** : 어조는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가)는 겸허한 기도조의 어조를 사용하여 경건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 (나)는 의지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유년 시절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다. 특정한 종결 어미가 주제 형상화와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목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7가 김현승, '가을의 기도'

**[해제]** 이 작품은 가을을 맞이하여 기도와 사랑, 절대 고독을 통해 삶의 궁극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도조의 어조로 고백하고 있다. 3개의 연에서 각각 '기도'와 '사랑'과 '고독'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가을'이라는 계절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전제로 한다. 만물이 조락하는 '가을'은 화자에게 있어 홀로 절대자와 대면하는 계절이다. 그는 절대자를 향한 겸허한 기도와 사랑을 통해 가을이 내적 성숙과 삶의 결실을 맺기 위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절대 고독을 통해 삶의 궁극적 경지에 도달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마지막 행의 '마른 나뭇가지 위'의 '까마귀'는 화자의 영혼이 투영된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가을의 기도와 사랑과 고독을 통한 정신적 충만감 추구

**[작품 핵심 보기]**

• '가을'의 의미

기도의 시간	사랑의 시간	고독의 시간
겸허한 모국어로 신에게 기도를 함.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 사랑으로 신에게 다가 가고자 함.	마른 나뭇가지 위의 까마귀같이 절대 고독의 경지에 이르고자 함.

### 나 문정희, '파꽃길'

**[해제]** 이 작품은 '흰 파꽃'을 통해 어린 시절의 추억과 고향을 떠올리며 그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흰 파꽃'의 감각적 이미지는 '바닷가 명교리'라는 공간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명교리'는 화자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고, 화자를 위로하던 '외가 식구들'이 살았던 공간이다. '흰 파꽃'의 냄새에서 연상되는 '슬픔'은 어린 시절의 '수치'와 '슬픔'을 떠오르게 하는 것으로, 화자는 이 '파꽃' 냄새를 따라 '명교리'에 가겠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겨 있는 '명교리'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주제]** 어린 시절의 추억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작품 핵심 보기]**

•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

시적 대상	시적 상황
파꽃 냄새 ← 유년 시절의 추억에 대한 애달픔과 그리움의 정서	파꽃 냄새를 맡으면 유년 시절의 고향과 추억이 떠오름.

**1** (가)는 기원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소서'를 활용해 절대자를 향한 염원을 나타내면서 경건하고 명상적인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리라'를 활용해 화자의 내면적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의 정서와 시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가을의 의미를 나열하면서 점차 3연으로 시상을 집중하는 점층적인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나)는 고향에 대한 회상의 형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다른 대상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와 (나) 모두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의인화하고 있지 않으며 풍자의 의도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가)는 기도조의 어조를 통해 자신의 기원을 나타내고 있으나, 가정적 진술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 '흰 파꽃이 여름에 피면'은 가정적 진술로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가)에서는 '낙엽들이 지는'에 하강적 이미지는 나타나 있으나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나)에서 '숯오리니'는 눈물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상승적 이미지로 보기는 어렵다.

**2** <보기>와 관련해 보면 화자는 지상 세계에서 '기도'와 '사랑'을 통해 자신을 채우고 가꾸고 또 '호율로', 즉 고독을 통해 천상 세계에 이르고자 한다. 이때 화자는 천상 세계의 절대자를 향해 '겸허한 모국어'를 통해 절대자와 소통하고자 한다. 이 '모국어'는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절대자가) 내게 주신 것이므로 지상 세계의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이며 숭고하고 진실된 언어로서 천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가 기도하는 대상과 사랑하게 해 달라고 하는 대상은 '오직 한 사람'이다.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이 기도와 사랑을 통해 천상 세계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천상 세계와 지상 세계는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 사람'은 천상 세계에 있는 절대자로서 화자와 수직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낙엽이 지는 때', 즉 가을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비옥한 시간'을 가꾸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다. 즉, '나의 영혼'이 천상 세계를 향해 나아가려는 시간이다.

③, ⑤ '열매'는 꽃의 결과물이며, '비옥한 시간'을 가꾼 결과이다. '마른 나뭇가지 위'는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이르게 되는 것으로, <보기>에 따르면 불안정한 지상적 삶이 소거되어 견고하고 응축된 천상 세계를 보여 주는 이미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까마귀'는 그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존재이므로, 천상 세계에 이르려는 화자의 내면이 투영된 대상임을 알 수 있다.

**3** 과거의 사건은 '내 수치와 슬픔'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은 '어린 시절 오줌을 싸서 / 소금 받으러 가다 넘어진' 일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㉔은 과거의 일을 통해 어린 시절의 자신의 수치와 슬픔을 파스하게 감싸 안아 주었던, 그러나 지금은 볼 수 없는 '외가 식구들'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㉔을 비롯하여 (가)에 쓰인 말줄임표는 간절한 기도의 어조와 함께 기도하는 내면으로의 침잠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② 화자가 택하는 '한 사람'은 화자가 바치는 기도의 대상, 화자가 소통하려는 절대자이다. 그러기에 '오직'은 '한 사람'의 절대성을 강화하는 부사어로 볼 수 있다.

③ '코끝을 건드리는 / 파꽃 냄새'의 후각적 심상과 그것이 유발하는 '슬픔'의 정서가 결합되어 있다.

⑤ '그리운 키'는 오줌을 싸서 소금을 받으러 다녔던 일로, 그 어린 시절에 대한 화자의 애절한 향수가 드러나 있다.



## 기본 옛 노트에서 / 마음의 수수발

본문 28~29쪽

1 ① 2 ② 3 ②

개념 확인 문제 1 ○ 2 ○ 3 수수발

**개념 연계 개념 3 시어의 함축적 의미** : 시에서는 작가가 문맥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 낸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 (가)는 '빛', '바람', '투명한 개울' 등의 함축적 의미를 통해 화자의 심리 상태를 형상화하고 있고, (나)는 '수수발', '하늘'과 같은 자연물의 함축적 의미를 통해 화자의 어두운 내면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인식 전환을 나타내고 있다. 시어의 함축적 의미가 작품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7장 장석남, '옛 노트에서'

**[해제]** 이 작품은 화자가 과거에 쓴 노트를 보면서 꿈 많은 시절을 회상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그리움을 가슴 가득 품고 살며 감정의 혼란을 겪었던 과거의 시절과 현재의 심정을 대비하며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나타내고 있는데, 화자의 과거의 내면을 '빛', '투명한 개울', '그리움의 모서리'로, 현재의 화자의 내면은 '앵두가 익을 무렵'이라는 함축적인 시어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순수한 꿈과 이상을 품고 막연한 그리움을 지니며 웅색하게 살았던 과거의 시간을 건너서 현재는 성숙한 내면을 갖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옛 노트를 통해 돌아보는 과거 자신의 모습

**[작품 핵심 보기]**

• 과거와 현재의 대비

과거의 화자	현재의 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수한 꿈과 이상으로 가득함.</li> <li>막연한 그리움으로 웅색하게 살았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면의 성숙을 이룸.</li> <li>과거의 자신의 삶을 돌아봄.</li> </ul>

## 4장 천양희, '마음의 수수발'

**[해제]** 이 작품은 혼란스러웠던 화자의 내면이 평온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어둡고 괴로운 마음으로 가득한 화자의 내면 상태가 '수수발', '머위 잎', '뒤란', '저녁만큼 저문 것'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절망 속에 좌절하지 않고 산을 올라다보고 산을 오르는 행위를 통해 현실에 대해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내면의 변화는 1행의 '수수발'이 마지막 행에서 '수수발이 환해진다'는 표현으로 바뀌는 것에 나타나 있으며, 상승적 이미지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다.

**[주제]** 어두운 내면이 평안에 이르는 과정

**[작품 핵심 보기]**

• 하강과 상승의 이미지와 화자의 정서 변화

하강의 이미지	상승의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녁만큼 저문 것</li> <li>땅을 들여다본다.</li> <li>세상을 내려놓고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은 올라다보아야</li> <li>하늘의 자리</li> <li>올라가라고</li> <li>내 막막함도 올라간다.</li> <li>절벽을 오르니</li> </ul>
어둡고 괴로운 내면세계를 지닌 화자	내면의 평화와 삶의 희망을 얻게 된 화자

1 (가)는 과거 화자가 순수한 꿈과 막연한 그리움을 지녔던 내면의 모습을 '많은 빛', '투명한 개울'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나)는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수수발', '절골의 그림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는 푸른 '풀밭'이 가득하던 봄을 지나 '앵두가 익을 무렵'인 여름으로 계절이 흘렀음을 알 수 있으나, (나)에는 계절의 흐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는 '많은 빛'이라는 동일한 시구와 '얼마나 ~ 앓/었던가', '~을 무렵'이라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지만, 순환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나)는 1행과 마지막 행이 변주되고 있지만,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거나 이를 통해 순환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④ (나)에 '번쩍'이라는 의태어가 활용되고 있을 뿐, (가)와 (나)에 의성어가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에 '수련담'에 청각적 이미지가, (나)에 '하늘의 자리는 상상하게 푸르다'와 '푸른 것들'에 시각적 이미지가, '우짚는'에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으나, (가)와 (나)에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공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

2 '바람이 풀밭을 스치면' 풀밭이 '수련'된다고 표현한 것은 과거의 화자가 사소한 외부의 자극에도 주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지, 화자가 성장하면서 겪었던 시련이 가혹함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즉, '바람'은 외부 자극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많은 빛'들은 젊은 시절 그리움을 품고 살며 지녔던 기쁨, 설렘, 환희 등의 감정을 의미한다.

③ 화자는 바람에 풀밭이 일렁이는 사소한 자연 현상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계기로 '이 세상 바깥까지', '투명한 개울'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상상의 나래를 펼칠 만큼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④ '그리움의 모서리'와 '웅색하게'라는 표현으로 보아 많은 막연한 그리움을 품었던 과거의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현재 화자의 상황을 '앵두가 익을 무렵'이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감정의 혼란을 겪던 시기에서 벗어나 내면적 성숙을 이루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화자는 [B]에서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삶을 체념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절망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저녁만큼 저문 것'은 어둠의 속성을 지닌 하강의 이미지로 화자의 어두운 내면 상태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러한 화자의 내면이 '절골의 /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라는 표현에서 더욱 깊은 어둠으로 심화되고 있다.

③ 화자는 '산 위의 산'을 올라다보는 행위로 아래에서 위로의 시선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④ '막막함'은 절망적 상태에서 하강의 속성을 지니는데, '푸른 것들'과 '술바람'으로 인해 그 막막함이 올라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푸른 것들'과 '술바람'은 화자를 일깨우고 복돋우는 존재로 화자가 '막막함'의 절망적 상태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⑤ 1행에서의 '수수발'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마지막 행에서 이러한 '수수발이 환해진다'고 하여 화자의 어두운 내면이 평화와 삶에 대한 희망으로 바뀌었음을 드러내므로 상승의 속성을 지니게 된 화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문 30~31쪽

1 ⑤ 2 ④ 3 ③

**개념 연계** **개념 3 시어의 함축적 의미** : 어떤 시어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주제가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가)는 토속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산골 마을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나)는 상징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분위기나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는 시어들의 의미를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7가 박용래, '월훈(月暉)'

**[해제]** 이 작품은 깊은 산속 외딴집에 홀로 살고 있는 노인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토속적 소재를 통해 그려 내고 있다. '모래 독', '허방다리', '봉당', '짚단' 등의 토속적 소재를 활용하여 산골 마을의 풍경과 긴 겨울밤 외딴집에 홀로 사는 노인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겨울밤 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노인의 모습에서 외로움의 깊이가 드러나며,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이라는 시구를 통해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산골 마을의 쓸쓸함과 고독한 분위기를 더욱 잘 살리고 있다.

**[주제]** 산속 외딴집에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움

**[작품 핵심 보기]**

• 시선의 이동에 따른 사상 전개

원경	→	근경
첩첩산중의 마을의 모습		마을의 외딴집에 살고 있는 노인

## 나 김종길, '성탄제'

**[해제]** 이 작품은 성탄제 무렵 삭막한 도시에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화자는 성탄제 가까운 날, 눈을 맞으며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어린 시절 열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을 위해 아버지가 눈 속을 헤치고 '산수유 열매'를 구해 오셨던 기억을 떠올린다. 여기서 '산수유 열매'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한다. '눈'은 과거의 아버지에게는 시련과 고난으로 작용하고, 어른이 된 화자에게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된 과거 화상의 매개체라는 의미를 갖는다. '눈'을 통해 화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보여 준 헌신적 사랑을 떠올리고 이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과거와 달리 헌신적인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현실과 본연의 의미를 잃고 흥청거리는 성탄제의 참된 의미를 일깨우고 있다.

**[주제]**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작품 핵심 보기]**

•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한 사상 전개

과거	눈	현재
어린 시절 화자가 느꼈던 아버지의 사랑	화상의 매개체	헌신적인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도시의 현실

**1** (가)는 원경인 '마을'에서 근경인 '외딴집', '노인'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나)는 아버지가 산수유 열매를 따 오셨던 화자의 어린 시절(과거)에서 화자가 당시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은 성탄제 즈음(현재)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오, 떼를 지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와 같이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노인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으나, (나)는 '붉은 산수유 열매',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 '산수유 붉은 알알이' 등과 같이 시각적 이미지와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② (가)는 '외딴집' 풍경을 관조적 태도로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고, (나)는 '아버지'와 '산수유 열매'에 얽힌 화자의 과거 기억과 현재 처지를 애상적 어조로 차분하게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말을 건네는 어투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가)는 '겨울', '눈발'과 같은 시어를 통해, (나)는 '성탄제', '눈'과 같은 시어를 통해 겨울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러한 시어들을 통해 부정적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가)는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외딴집에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삶을 관조적으로 담담하게 그려 내고 있을 뿐, 영탄적 표현이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나)는 반어적 표현이 아니라 과거와의 대비를 통해 현실의 삭막함을 드러내면서 각박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2** '겨울 귀뚜라미'는 화자가 바라보는 '외딴집 노인'의 서글픈 정서가 투영된 대상이므로 벽이 무너지라고 우는 귀뚜라미의 울음 소리는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외딴집 노인'의 절망적인 외로움과 고독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시적 대상인 '외딴집 노인'을 관조적 태도로 바라볼 뿐, '외딴집 노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 '강(坑) 속 같은 마을'은 마을이 깊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현대 문명과는 단절된 토속적 공간으로서의 '외딴 마을'을 형상화하고 있다.

② 겨울에 짧게 지는 해를 '노루꼬리'로, 후미진 외딴집을 '궁각지'로, 불이 켜진 창문을 '모과 빛'으로 표현하면서 마을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③ '외딴집 노인'이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듣고, '새들의 온기'를 생각하는 모습은 노인이 누군가 찾아와 주기를 바라고 따스한 정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노인의 기다림과 외로움의 정서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과 같이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하여 여운을 주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 같은 허연 테를 월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월훈'이 '창호지 문살'에 비치는 모습은 산골 마을의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더욱 잘 드러내는 효과를 준다.

**3** '서늘한 옷자락'은 '산수유 열매'를 따기 위해 눈 속을 헤치고 다니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구이다. 따라서 엄하셨던 아버지에 대한 인상을 나타내는 시구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해초리가 찾아드는 어린 목숨'은 화자 자신을 대상화한 표현으로, 열병에 시달렸던 과거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② '붉은 산수유 열매'는 열병을 앓던 화자를 위해 아버지가 눈 속을 헤치고 따온 '약'으로 그려져 있으므로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④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은 현재 내리고 있는 '눈'을 가리킨다. 화자는 '눈'을 맞으며 눈의 서늘한 감촉에서 어렸을 적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며 아버지의 사랑을 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날 도시에서는 옛것이란 찾아볼 길 없다며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현실을 돌아보고 있다.

⑤ '산수유'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이 시간을 넘어 영원히 화자의 몸 안에 흐르고 있음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강조하고 있다.

## 기본 어느 지류에 서서 / 노래

본문 32~33쪽

1 ② 2 ② 3 ③

개념 확인 문제 1 어둠, 밝음 2 유사한 문장 구조

**개념 연계** **개념 4 시의 음악성** : 시의 음악성은 일정한 음운이나 시어, 시구, 문장 구조 등의 반복을 통해 운율이 형성될 때 드러난다. (가)와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와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여 음악적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각 작품에서 어떤 요소가 반복되면서 운율이 형성되는지를 비교하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가 신석정, '어느 지류에 서서'

**[해제]**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여 암울하고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적인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밤'으로 상징되는 암울한 현실에 처한 화자는 절망의 끝에서 어둠을 거두어 가는 '빛나는 태양'을 떠올림으로써 시련 끝에 찾아올 희망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다. 이에 화자는 '푸른 하늘'을 '우러러보리'라는 신념에 찬 어조를 통해 광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

**[작품 핵심 보기]**

• 현재 상황과 희망찬 미래

현재	빛나는 태양 →	미래
- 강물 아래로 검은 밤이 흐름. - 푸른 별이 은하수에 빠짐.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음.

### 나 이시영, '노래'

**[해제]** 이 작품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고자 하는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사랑한다는, 잊어버릴 수 없다는 말을 하고자 '강'과 '산마루'에 선다. 그러나 장애물로 인해 건너갈 수 없다. 임에 다가가지 못하겠다고 절망적 고백을 하던 화자는 '아득한 낭에 핀 한 떨기 꽃'과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 은빛 찰나의 물고기'의 이미지를 통해 임에게 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낸다. 3연에서는 화자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생각하는 미완성 어법을 통해 그 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절망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고자 하는 의지

**[작품 핵심 보기]**

• 시적 상황과 화자의 의지

임에게 가기 위한 노력	→	장애물	→	임에게 가고자 하는 의지
강에 섬. 산마루에 섬.		바람, 강물 천둥, 비바람		은빛 찰나의 물고기 낭에 핀 한 떨기 꽃

1 (가)에서는 '강물 아래로 ~ 어두운 이 강물 아래로'라는 유사한 문장 구조와 '흐른다'와 같은 시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화자의 부정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나)에서도 1연과 2연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갈 수 없는 화자의 절망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1, 3연을 보면 1행의 '강물 아래로'가 2행에서는 각각 '한 줄기 어두운 이 강물 아래로', '못 건너게 어두운 이 강물 아래로'로 변주됨으로써 의미가 점점 구체화되고 심화되는 점층법의 효과를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암울한 현실에 처한 화자의 부정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이러한 점층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와 (나) 모두 화자의 독백적 어조로 사상이 전개되고 있을 뿐, 시적 대상을 청자로 설정하여 호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에서는 어두운 '밤'이 지나고 '태양'이 떠오르는 자연 현상의 변화에 따라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나)는 '강, 산마루, 낭, 꽃'과 같은 자연물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지만, 자연 현상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 양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에서는 '우러러보리'에서 어떤 일을 할 자신의 의향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리'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는 '-네'라는 종결 어미를 통해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절망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의식을 품는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2 <보기>를 참고하면 (나)의 3연에서는 미완성 어법에 의해 1, 2연의 4행에 대응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1, 2연은 먼저 대상과 단절된 공간을 언급한 후, 4행에서 '못 건너가겠네', '못 다가가겠네'라고 말하며 절망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러나 3연의 '아득한 낭에 핀 한 떨기 꽃'과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 은빛 찰나의 물고기'는 이러한 절망을 뒤집는 이미지로, 장애물에 절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과제에 대한 답으로는 ②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③ (나)의 화자는 3연에서 '아득한 낭'에 핀 '꽃'처럼, 강물의 '거센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절망을 극복하고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시도하기를 망설이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내용은 화자의 이러한 의지적 태도와 맞지 않다.

④ (나)의 화자는 1, 2연에서는 절망적 태도를 보이지만 3연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태도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내용은 작가의 의도를 찾는 과제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의 3연에서 '꽃'과 '물고기'는 절망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려는 화자의 강한 의지가 투영된 소재이다. 화자는 '꽃'과 '물고기'를 벗 삼아 가려는 풍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보기>의 'III. 과제 설정'에 제시된 조건에 맞지 않는 표현이다.

3 ㉠은 '검은 밤'이 흐르는 '어두운' 곳으로 암울한 현실을 상징하며 부정적, 하강적 이미지를 환기한다. 그러나 (가)의 화자는 이러한 절망의 끝에 찾아오는 '태양', 즉 희망을 기다리며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따라서 ㉠은 떠오르는 '태양'의 상승적 이미지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꽃'은 절망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소재로 긍정적 이미지가기는 하나 상승적 이미지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강물'은 '어두운'과 결합해 부정적이고 암울한 현실을 상징한다. (나)에서 '이 강'은 화자가 건너지 못하는 곳으로 부정적,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② (가)에서 '강물'의 흐름은 '밤', '태양'과 연결되어 시간과 역사의 흐름을 나타내므로 시간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이 강'은 '산마루'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화자 사이를 단절시키는 공간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④ '지류'는 '강의 원줄기로 흘러들거나 원줄기에서 갈려 나온 물줄기'를 뜻한다. 이로 볼 때 (가)의 화자는 본류, 즉 역사의 거센 물줄기가 흐르는 현실로부터 어느 정도 비켜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나)에서 '이 강'은 거센 '바람'과 '강물'이 있는 곳이므로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너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 심화 달밤 / 흑백 사진-7월

본문 34~35쪽

1 ② 2 ⑤ 3 ④

**개념 연계** **개념 4 시의 음악성** : 운율의 종류는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 겉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에 따라 외형률과 내재율로 나뉜다. (가)와 (나)는 각각 외형률과 내재율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각 작품에서 어떤 요소가 주로 운율을 형성하는 데에 작용하는지를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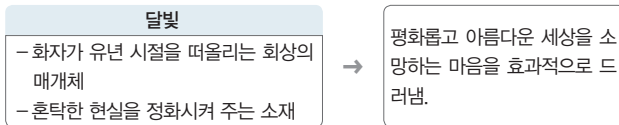
### 가 이호우, '달밤'

**[해제]** 이 작품은 외형률이 드러나는 현대 시조로, 평화로웠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혼탁한 현실 세계가 '달빛'처럼 아름답고 순수한 세계로 정화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여러 작품들에서 '밤'이 암울한 현실을 의미하는 것과 달리, 이 작품에서는 '밤'이 '달빛'의 기능을 통해 좀 더 머물고 싶은 긍정적인 시간으로 표현된 점이 특징적이다. 경어체를 사용하여 그리움의 감정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선경 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맑은 달빛 아래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며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소망

**[작품 핵심 보기]**

• '달빛'의 의미



### 나 정일근, '흑백 사진-7월'

**[해제]** 이 작품은 유년 시절의 한 장면을 클로즈업하여 마치 흑백 사진 한 장을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추억을 그려 내고 있는 산문시로, 유년기의 추억을 순수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내 유년의 7월에는'이라는 첫 시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회상적인 어조로 전체 시상을 이끌고 있다. 작품의 중간 부분에서는 대화체의 형식을 활용하여 대상인 자연, 특히 '미루나무'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평화로운 자연 속 순진무구한 화자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느낄 수 있다.

**[주제]** 유년 시절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추억

**[작품 핵심 보기]**

• 화자의 상황 및 정서



1 (가)의 3연에서는 화자의 유년 시절의 기억이 담겨 있는 '그날 밤'에 대한 회상이 드러나 있다. (나)는 첫 부분의 '내 유년의 7월에는'이라는 시구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의 상황을 떠올리며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화자는 '달밤'이라는 자족적인 세계가 지속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유년 시절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고 있으므로, (가)와 (나)의 화자 모두 부재하는 대상으로 인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가)와 (나)는 주로 서술형으로 시행을 종결하고 있다. (나)에서 '미루나무 한 그루'와 같이 명사로 끝맺은 시구가 한 번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다.
- ④ (가)와 (나) 모두 화자가 바라보는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⑤ (가)는 '미움과 더러움'으로 얼룩진 현실이 '달빛'으로 정화되기를 소망하면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으나, 외부 세계와 내면을 대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는 유년 시절의 화자가 외부 세계의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세계와 내면을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 4수의 초장인 '미움도 V 더러움도 V 아름다운 V 사랑으로'는 한 음보마다 각각 '3·4·4·4'의 글자 수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3(4)·4조의 기본 음수율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시조의 경우 글자 수의 제약이 있는데, 정해진 글자 수 안에 화자의 정서를 보다 압축해서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형식이 내용을 담는 틀을 넘어서서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각 수는 시조의 전형적인 형식인 3장 형식에 따라 전개되는데, 간결한 짜임에 내용을 담아내야 하므로 시상을 응축하여 나타내고 있다.
- ③ '낙동강 V 빈 나무에 V 달빛이 V 푸릅니다'처럼 각 장을 4음보로 끊어 읽는 음보율을 통해 작품을 낭송할 때 규칙적인 리듬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④ '무엇인지'는 '무엇인지'를, '할버진'은 '할아버지'를 뜻하는데, 음절의 수를 의도적으로 조절하여 3(4)·4조의 기본 음수율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특히 시조에서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3음절로 글자 수를 지켜야 하는데, 3수의 종장 첫 음보인 '할버진'은 이를 위해 음절 수를 줄여 표현한 것이다.

3 ㉠은 해엄을 치고 난 후 물기를 말리는 화자의 몸에 줄음이 퍼져 오는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구로,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도 배고픔보다 먼저 밀려오는 달콤한 낮잠이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궁핍한 처지를 알 수는 없다.

**[오답 풀이]**

- ① 유년 시절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파란 하늘의 구름을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② '노래'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냇물이 흐르는 모습을 동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여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 ③ 화자는 미루나무 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미루나무에게 달아나지 말라고 말을 건네고 있다. 이는 '미루나무'에 대한 화자의 친근감과 자연을 대하는 화자의 순수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는 자신이 잠든 것을 계절적 배경인 '7월'이 잠든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7월과 하나가 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즉, 화자와 7월 간의 동일시를 통해 자연과 화자가 하나를 이룬 평화롭고 동화적인 세계를 제시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기본 추일서정 / 떨어져도 튼튼 공처럼

본문 36~37쪽

1 ③ 2 ③ 3 ④

개념 확인 문제 1 하강, 상승 2 도시

**개념 연계** **개념 5 시의 이미지** : 시에 사용된 다양한 이미지는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할 뿐 아니라,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에도 기여한다. (가)와 (나)는 다양한 이미지의 활용을 통해 회화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들이다. 각 작품에 사용된 다양한 이미지를 파악하고, 그 이미지가 작품에서 어떤 효과를 주는지 살펴보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가 김광균, '추일서정(秋日抒情)'

**[해제]** 이 작품은 가을날의 황량한 풍경을 통해 도시적 삶의 고독감과 비애감을 그리고 있다. 1930년대 모더니즘 경향의 특징인 도시적 감각과 회화적 이미지가 잘 나타나 있는 이 작품은 선경 후정의 사상 전개 방식을 활용하여 1~11행에서는 쓸쓸한 가을날의 풍경을 드러내고, 12~16행에서는 화자의 고독한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주제]** 가을 풍경의 황량함과 고독감

**[작품 핵심 보기]**

• 다양한 소재를 통한 화자의 정서 표현

낙엽	쓸쓸함과 무상감
길, 급행열차의 연기, 포플러 나무, 공장의 지붕, 구름	황량함과 고독감

## 나 정현중, '떨어져도 튼튼 공처럼'

**[해제]** 이 작품은 공의 다양한 속성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화자는 공의 둥글고 탄력 있는 속성에 주목하여,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더라도 '떨어져도 튼튼 공처럼' 이를 긍정적으로 극복해 내리라고 다짐하고 있다. 하강과 상승 이미지를 교차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의지적인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공'의 둥근 모양은 '최선의 꼴'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는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자세를 의미한다.

**[주제]**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삶의 자세

**[작품 핵심 보기]**

• 대상의 속성을 통한 주제 표현

'공'의 속성	
- 떨어져도 튼튼 오름. - 쓰러지는 법이 없음. - 늘 움직임 준비가 되어 있음.	→ 많은 실패 속에서도 이를 극복해 내는 불굴의 생명력과 의지

1 (가)에서는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일광(日光)의 폭포', '조그만 담배 연기' 등에서 은유법을,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에서 직유법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나)에서도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 왕자처럼', '지금의 네 모습처럼'과 같은 직유법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에는 '두 시',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帳幕)'의 표현을 통해 오후, 저녁 무렵의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으나, 이는 가을날의 풍경을 이루는 소재들을 특별한 기준 없이 화자의 시선에 따라 나열한 것이므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사상을 전개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나)에는 시간의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나)에서는 '살아 봐야지', '공이 되어', '쓰러지는 법이 없는'과 같은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으나, (가)에는 시구의 반복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가)의 자연은 화자의 황폐한 내면을 환기하는 배경일 뿐, 인간과 대비를 이루고 있지 않다. (나) 역시 인간과 대비를 이루는 자연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⑤ (가)에서는 시행을 주로 평서형으로 종결하거나 명사로 끝맺고 있으며, (나)에서는 '살아 봐야지', '떠올라야지'와 같은 의지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명령의 어조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2 [C]에서는 '흰 이빨',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 등 색채 이미지를 환기하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가을날의 황량함과 도시의 삭막함을 드러내고 있을 뿐 화자의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낙엽'을 '망명 정부의 지폐'에 빗대어 표현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② [B]에서는 '길'을 '구겨진 넥타이'에 비유하여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졌다고 표현하고 있고, '급행열차'가 내뿜는 증기를 사라지는 '담배 연기'로 비유하였다. 이처럼 '길'과 '급행열차'는 모두 소멸의 이미지로 표현되어 화자를 둘러싼 도시라는 공간의 황폐한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④ [D]에서 '자욱 - 한 풀벌레 소리'는 청각을 시각화하여 나타난 공감각적 이미지로, 허전함과 쓸쓸함을 환기하며 황량한 화자의 정서와 조응하고 있다.

⑤ [E]에서는 '돌팔매'가 '고독한 반원(半圓)'을 그으며 떨어지는 하강 이미지로 사상이 종결되고 있다. 이는 고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화자의 처지를 암시한다.

3 3연에서 화자는 '가볍게' 떠오르는 공의 속성에 주목하여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고 이를 긍정적으로 극복해 내려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화자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오답 풀이

① '그래 살아 봐야지'라는 다짐에는 화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을 긍정하고 수용하려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② '떨어져도 튼튼 공'의 모습은 탄성 있는 공의 재질에 의한 것으로, 고난과 시련에도 다시 튀어 오르는 공처럼 꺾이지 않는 삶의 자세를 지니고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③ 공은 '둥근' 구(球)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둥근 공'의 특성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꼴'과 대응하여 잘 굴러다니는 공의 모습을 연상하게 함으로써 운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⑤ 화자는 '둥근 공'의 모습을 '최선의 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 지식 더하기

## 김광균의 모더니즘

김광균은 1930년대 모더니즘 시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회화적인 시를 쓰는 데에 뛰어났던 이미지즘 계열의 대표적인 작가이다. 생경하고 낯선 비유나 공감각적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시각적 이미지를 중시하여 사물은 물론 관념이나 심리 등 추상적인 것마저 형상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 심화 추억에서 / 감

본문 38~39쪽

1 ④ 2 ④ 3 ③

**개념 연계** **개념 5 시의 이미지** : 감각적 이미지의 사용은 시적 상황이나 화자의 정서를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와 (나)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각 작품에 사용된 감각적 이미지가 시의 분위기 형성 및 정서 환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가 박재삼, '추억에서'

**[해제]** 이 작품은 화자의 유년기 추억 속에 각인된 어머니의 서러운 삶과 한(恨)을 형상화하고 있다. 어른이 된 화자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어머니의 슬프고도 한스러운 모습을 추억하고 있다. 이 작품은 장터에서 생선을 파는 어머니의 고된 삶과 어머니를 기다리며 떨던 오누이의 모습을 주로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함으로써, 가난한 삶으로 인한 어머니의 슬픔과 한(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감정을 절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한이던가', '떨던가', '어뻘했을까', '것인가' 등을 보면 시행을 단정형인 'ㄴ'을 피하고 'ㄷ'던가, 'ㄹ'을고, 'ㄴ'가'와 같은 의문형, 추측형 종결 어미로 종결함으로써 화자가 감상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고 감정을 절제하여 나타내는 효과를 얻고 있다.

**[주제]**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어머니의 한(恨)

**[작품 핵심 보기]**

• 시각적 이미지를 통한 '한'의 형상화

해 다 진 어스름	쓸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애상적 정서를 환기함.
빛 발하는 눈깔들, 은전	가난으로 인한 어머니의 힘겨운 삶과 한의 정서를 환기함.
새벽에나 보는 맑은 진주 남강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던 어머니의 고달픈 삶을 부각함.
달빛 받은 웅기들처럼 반짝이던 것	어머니가 글썽했을 눈물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함.

### 나 허영자, '감'

**[해제]** 이 작품은 맑은 가을 햇살 속에서 익어 가는 감을 통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성숙해 가는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을 나타내고 있다. 작가는 생명의 근원 법칙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방식을 찾아내는데, 삶의 열정과 그런 열정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내적인 성숙을 가지면서 온전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음을 깨닫는다. 그것은 뚝고 비리던 풋감이 붉은 단감으로 익어 가는 것에서 유추하여 젊은 날의 고뇌를 거쳐 성숙해 가는 인간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작가 특유의 여성적인 섬세함과 강렬한 생명력이 잘 드러나 있으며, 숙명론적인 자기 통찰에 의한 깨달음이 간결한 시행 속에 나타나 있다.

**[주제]** 가을에 느끼는 성숙의 의미

**[작품 핵심 보기]**

• 유추를 통한 주제 표현

감이 익어 가는 과정



성숙해 가는 인간의 삶

1 (가)에서는 'ㄷ'던가', 'ㄴ'가'와 같은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시행을 종결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고, (나)에서는

'ㄴ' 수박에는'의 형태를 각 연에 반복하여 시행을 종결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며 리듬감을 자아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역설은 논리적으로는 모순되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을 말한다. (가)의 2연에서, 팔지 못한 고기의 '눈깔들'로부터 '은전'을 떠올리는 것을, 가난으로 인한 한을 심화하는 역설적 인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에는 그와 같은 역설적 인식이나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가)에서 가난했던 어린 시절 어머니를 기다리는 오누이의 모습을 '별 발'이 '손 시리게 떨던가'로 표현한 것은 '별'에 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한 의인화의 기법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에서는 '울 엄마'나 '오명 가명'과 같은 방언의 사용을 통해 향토적인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나)에서는 토속적 방언을 사용한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시적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해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2 어머니는 날이 새기 시작하는 첫새벽에 나가 밤에 돌아오기 때문에 '진주(晋州) 남강(南江)'의 맑은 물빛을 보지 못한다. 따라서 '진주 남강'은 이러한 어머니의 고달픈 처지와 서러운 심정을 더욱 부각하는 소재일 뿐,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는 대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해 다 진 어스름'은 장터의 파장을 알리는 시간적 배경이다. 이는 그날 팔지 못한 고기는 다시 팔 수 없는 '생어물전'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절박한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② 화자는 팔고 남은 생선 '눈깔'의 빛나고 둥근 이미지를 통해 '은전(銀錢)'을 떠올린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생선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하루 종일 고생하며 일해도 고기를 다 팔지 못했다. 그러므로 '은전'은 어머니에게 '손 안 닿는 한(恨)'으로 남아 가난으로 인한 한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③ '골방'에서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오누이'의 모습은 '손 시리게 떨던가'와 같은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이는 화자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달빛'에 반사되는 '웅기들'의 반짝임은 화자로 하여금 어머니의 눈물을 연상하게 한다. 즉, 반짝이는 '웅기'의 이미지를 통해 어머니의 한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3 (나)에서 성숙하지 못했던 '젊은 날'은 붉은 단감이 되기 전인 풋감의 상태로 그려지고 있다. '뚝고 비리던 내 피'라는 시구는 '젊은 날'의 고뇌와 번민을 미각적 이미지와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ㄴ). 또한 성숙해 가는 인간의 삶의 모습을 감이 익어 가는 과정에 유추하여 표현하고 있다(ㄹ).

**[오답 풀이]**

ㄱ.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은 결실과 성숙의 분위기를 환기하여 주제 의식과의 연관성을 높이고 있다. (나)의 화자는 성숙해 가는 삶에 대한 통찰을 드러내고 있을 뿐, 고독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ㄷ. '내 피'와 '붉은 단감'이 주는 선명한 색채 이미지가 작품의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유사한 색채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므로 서로 대조된다고 볼 수 없다.

## 기본 거문고 / 저녁 길

본문 40~41쪽

1 ② 2 ⑤ 3 ②

개념 확인 문제 1 인격적 2 파충류

**개념 연계 개념 6 비유와 상징** : 비유는 시적 대상의 속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와 (나)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유사한 속성을 지닌 다른 현상이나 사물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인 비유를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각 작품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을 찾아보고 작가가 이를 통해 본래 표현하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가 김영랑, '거문고'

**[해제]** 이 작품은 '기린'을 의인화하여,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기린'이 울지 못한다는 시적 상황으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자유를 빼앗기고 암울한 현실을 견디고 있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기린'의 모습을 통해 표현하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의 부정적인 세력들을 '이리떼', '잔나비떼'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아름답게 다듬어진 시어의 사용이 특징적인 김영랑의 다른 작품들과 달리, 시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민족적 현실을 짚어 보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 암울한 현실 극복에 대한 소망

**[작품 핵심 보기]**

• 시어의 상징적 의미

기린	거문고, 우리 민족
노인	기린을 울게 했던 희망적 존재
검은 벽, 밤	기린을 울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 현실
이리떼, 잔나비떼	기린을 억압하는 외부의 존재들

## 나 김광규, '저녁 길'

**[해제]** 이 작품은 현대인들의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현대인들은 '날 생각'으로 대변되는 꿈과 이상을 포기한 채, 하루하루의 일상만을 반복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화자는 버스나 전철을 타고 매일 일터와 집을 오가는, 무비판적이고 무기력한 현대인의 모습을 파충류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수동적인 현대인의 삶에 대한 반성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일상에 묶인 현대인의 삶

**[작품 핵심 보기]**

• '파충류'에 빗댄 현대인의 삶

파충류	→	현대인
- 머리는 퇴화하고 온몸에 비늘이 돋고 피는 식어 버림. - 매일 뉘으로 돌아감.		- 무비판적 사고를 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감. - 매일 일상적 공간인 집으로 돌아감.

1 (가)는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현실을 '기린'이 울지 못하는 상황에 빗대어 나타내고 있을 뿐, '기린'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기린'은 우리 민족을 비유한 대상이자 화자의 답답한 정서가 이입된

대상이다. 반면 (나)에서는 이러한 감정 이입의 대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나)의 2연에서는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열하여 무기력한 현대인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기린'이 울지 못하는 모습이 1연과 4연에 반복되어 있을 뿐 기린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가)에서는 '못한다', '없어지다'와 같은 현재형 종결 어미를 통해 부정적 현실을 보여 주고 있으며, (나)에서도 '오래다', '않는다', '한다', '간다' 등의 현재형 종결 어미를 통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⑤ (가)의 '못한다', '없어지다'와 (나)의 '않는다', '아니다'는 모두 부정적 의미의 시어로, 이를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 화자는 울지 못하는 '기린'을 통해 부정적인 시대 현실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 민족이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 화자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화자가 우리 민족이 부정적 현실을 참아내야 한다는 당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1연의 '검은 벽'과 4연의 '이 밤'은 '기린'이 마음 놓고 울지를 못하게 하는 공간과 시간이다. 이는 <보기>를 참고할 때 '기린'의 자유를 억압하는 암울한 시대 현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1연에서는 '해가 스무 번' 바뀔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기린'은 여전히 울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암울한 현실이 지속되어 왔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화자의 절망도 깊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③ 2연의 '노인'은 '기린'의 가슴을 '통 흔들고 간' 사람으로, '기린'을 울 수 있게 해 준 존재이다. 따라서 화자가 동경하는 희망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다.

④ 3연의 '이리떼'와 '잔나비떼'들은 '기린'이 '맘 둘 곳 몸 둘 곳'을 없어지게 만든 존재이므로, <보기>를 참고할 때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억압하던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3 '버스'와 '전철'은 '돈벌이'를 위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수단으로, '집'과 함께 일상적이고 무의미한 공간이다. 따라서 일상의 반복적인 순환을 보여 준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것을 생산과 파괴의 반복적 순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날 생각'은 꿈과 이상을 추구하는 능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버스나 전철'에 실려 다니는 것은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므로 서로 대비된다고 볼 수 있다.

③ '익숙한 발걸음', '매일 저녁'은 일상의 반복을 보여 주는 시어들로서, '집'과 연결되어 일상적인 공간으로서의 '집'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④ '집'에 사는 '우리'를 '뉘'에 사는 '파충류'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일상적이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뉘'는 한 번 빠지면 쉽게 헤어 나올 수 없는 공간으로, '피'가 식어 버린 현대인의 모습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하고 있다.

## 지식 더하기

## 김영랑의 작품 세계

김영랑의 작품 세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먼저 내면세계와 아름다운 서정의 세계를 언어의 조탁(彫琢)을 통해 나타난 작품으로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등이 있다. 두 번째로는 1940년을 전후하여 발표된 '거문고', '독을 차고', '묘비명' 등과 같이 시대 현실이나 인생에 대해 관심을 보인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광복 후에 발표된 '바다로 가자', '천 리를 올라온다' 등과 같이 새 나라 건설에 참여하려는 의욕이 강하게 담긴 작품이다.



## 심화 폭포 /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본문 42~43쪽

1 ④ 2 ④ 3 ①

**개념 연계** 개념 6 **비유와 상징** : 상징을 활용하면 시어의 의미를 암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작품의 문학성을 높여 주는 데 도움이 된다. (가)와 (나)는 시적 대상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작품의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두 작품에서 상징적 의미로 쓰인 시어를 찾고, 화자의 정서와 시적 맥락을 고려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를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한 주제 의식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가 김수영, '폭포'

**[해제]** 이 작품은 부조리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는 곧은 정신에 대한 지향을 노래하고 있다. 1연에서 '곧음'과 '두려움 없음'으로 규정된 폭포의 속성은 2연에서 '규정할 수 없는' 자유로움,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는, 오직 '떨어짐'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관성,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실 사이 없'는 지속성이 더해지면서 '고매한 정신'과 유사한 것으로 규정된다. 이렇게 폭포에 의해 상징되는 곧고 강인한 정신은 '밤'으로 제시된 어두운 시대 상황에서도 '곧은 소리'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폭포가 상징하는 정신이 어두운 시대 현실에도 굴하지 않는 곧고 강인한 저항 정신임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부정적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의지

**[작품 핵심 보기]**

• '폭포'의 속성과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

폭포의 속성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부정적 현실에 굴하지 않는 저항 정신
• 규정할 수 없는 물결 •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절대적인 자유로움 추구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관성, 지속성
고매한 정신처럼 실 사이 없이 떨어진다.	부정적 현실에 끊임없이 저항함.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소리를 냄.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현실에 안주하는 삶 거부

### 나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해제]** 이 작품은 '텔레비전'을 끄게 된 것을 계기로 주목하게 된 '풀벌레 소리'를 통해 그간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연의 작은 소리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 자연과의 공생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풀벌레들이 수없이 자신에게 왔다가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고 전등에 부딪쳐 떨어졌을 것이라고 하면서 인간과의 소통을 희망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그간 이러한 소망이 좌절되었을 것을 안타까워한다. 이 작품에서는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문명과 '풀벌레 소리, 어둠, 별빛'으로 대표되는 자연이 대조되는데, 화자는 문명의 인공적인 삶 속에 길들여진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며 자연의 소리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채우려 하고 있다.

**[주제]** 문명에 대한 비판 및 자연과의 공생에 대한 소망

**[작품 핵심 보기]**

• 문명과 자연의 대조

문명 텔레비전, 브라운관의 현란한 빛

↕ 대조

자연 풀벌레 소리, 어둠, 별빛

1 (가)에서는 '폭포'에 대한 시각적 인식에 이어 '폭포'가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고 하여 폭포에 대한 청각적 인식에 기반하여 부정적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나) 또한 '풀벌레들'의 '소리'에 주목하여 문명의 인공적인 삶에 길들여진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자연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폭포라는 하나의 공간만이 나타나 있으며, (나)는 문명과 자연의 대비가 나타나 있으나 공간의 대비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가)와 (나) 모두 청각적 이미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 ③ (가)에서는 '폭포'를, (나)에서는 '풀벌레 소리'를 중심으로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으나, 이들 모두 일상적 사물로 보기는 어려우며 '풀벌레 소리'의 경우 그 속성에 대한 관찰이 나타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⑤ (가), (나) 모두 앞부분의 표현이 끝부분에 반복되는 수미 상관의 구조가 나타나 있지 않다.

2 나타와 안정'은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실 사이 없이' '번개와 같이 떨어지'면서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는 폭포의 속성이나 이것이 상징하는 곧은 저항의 정신과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나타와 안정'이 폭포의 '높이'와 '폭'을 규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은 (가)나 <보기> 어디에서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곧은 절벽을' 떨어지는 것으로 규정된 폭포는 '고매한 정신'과 유사한 것으로 제시되면서 폭포가 상징하는 정신이 곧은 정신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무서운 기색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폭포가 떨어진다 것은 폭포가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일관되게 떨어지는 속성을 지닌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③ '밤'은 어두운 시대 현실을 상징하는 시어로, 폭포가 밤에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는 것은 어둠에도 굴하지 않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곧은 정신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폭포가 '떨어진다'는 반복적 표현은 '떨어짐'이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폭포의 속성을 통해 폭포가 상징하는 곧은 정신을 일관되게 추구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어둠'과 '별빛'은 '텔레비전'이 뿜어내는 '브라운관의 현란한 빛'과는 대조되는 자연의 명암으로, 이는 풀벌레 소리를 더욱 환하고 낭랑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텔레비전'이나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은 풀벌레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일조해 왔던 문명의 이기를 상징하는 시어로 볼 수 있다.
- ③ '두근거리며 매달린 / 여린 마음들'은 화자가 상상의 풀벌레들의 마음으로, '나'를 비롯한 인간들에게 자신의 소리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풀벌레들의 소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소리들'은 '나'가 '텔레비전'을 끄기 전까지는 수없이 되돌아가거나 떨어지는 경험을 반복해 왔는데, 이는 소통에 대한 풀벌레들의 희망이 좌절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 ⑤ '나'는 텔레비전을 끄게 됨으로써 '풀벌레 소리'를 인식하게 되고, '크게 밤공기 들어쉬고'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본 **님의 침묵 / 겨울 들녘에 서서**

본문 44~45쪽

1 ③ 2 ⑤ 3 ⑤

개념 확인 문제 1 시상의 전환 2 역설적

**개념 연계 개념 7 역설과 반어** :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면 시적 의미를 인상적이고 강하게 전달할 수 있다. (가)와 (나)는 겉으로는 모순되고 이치에 닿지 않는 표현이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작품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각 작품에 나타난 역설적 표현을 찾아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가 한운은, '님의 침묵'

**[해제]** 이 작품은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슬픔을 다시 만날 희망으로 전환하면서, 만남과 이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고찰하는 화자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사랑하는 임이 떠난 상황과 그에 따른 슬픔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반부의 '그러나'를 기점으로 하여, 만남은 원래 이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이별 후에는 다시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역설적 진리를 깨달으면서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난다. 후반부에서는 다시 한번 임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면서 임에 대한 절대적이고 깊은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즉,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회자정리(會者定離)', '거자필반(去者必返)'이라는 불교적 진리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며, 임이 떠난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있을 뿐이라는 역설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작품 핵심 보기]**

• 이별에 대한 화자의 정서 변화



## 나 오세영, '겨울 들녘에 서서'

**[해제]** 이 작품은 '겨울 들녘'에서 볼 수 있는 '날알', '돛병', '허수아비'를 통해 사랑으로 인해 괴로움과 슬픔, 아픔 등 삶의 고뇌를 겪게 된 사람들에게 위로와 건네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시적 공간인 '겨울 들녘'은 빈 공간이지만, 그 모습 자체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깨달음을 주는 자연의 공간이다. 화자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사랑의 고통과 이별의 슬픔, 그리움의 아픔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며 사랑의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주제]** 겨울 들녘에 가서 받는 위안**[작품 핵심 보기]**

• 시적 대상을 통한 삶에 대한 통찰

겨울  
들녘

- '떨어진 날알 몇 개' : 벼뭉치로써 마음이 충만해지고 기쁨을 느낄 수 있음을 깨닫게 함.
- '돛병의 눈빛' : 영원한 만남의 의미에 대해 깨닫게 함.
- '허수아비' : 홀로 있는 것이 오히려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한다고 깨닫게 함.

1 (가)에서는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님은 갓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와 같은 시구에서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재회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 (나)에서도 '빈 공간의 충만', '홀로 있음으로 오히려 더불어 있게 된 자의 성찰' 등과 같은 시구에서 역설적 표현을 통해 사랑의 고통과 이별의 슬픔, 그리움의 아픔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아이'를 사용하는 영탄법을 통해 애상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만, (나)에는 이러한 영탄법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가)의 2행에서는 '푸른 산빛'과 '단풍나무 숲' 간의 색채 대비가 드러나지만, (나)에는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색채 대비가 드러나지 않는다.
- ④ (가)에는 임과 이별한 '나'가 작품 표면에 화자로 등장하고 있으나, (나)에는 화자가 작품에 표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 ⑤ (가)에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화자의 정서 변화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정서가 점층적으로 고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는 시종일관 차분하게 사랑을 전개하고 있을 뿐, 정서의 고조가 드러나지 않는다.

2 (가)에서 화자는 임과 이별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임이 아주 떠나간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9행에서 화자는 '님은 갓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함으로써 임에 대한 절대적 사랑과 재회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1행에서 임이 떠났다는 사실을 반복하는 것은 임과의 이별로 인한 화자의 슬픔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 ② 3행에서는 임과 사랑하던 시절의 '굴고 빛나던 옛 땀'이 '차디찬 티끌'이 되어 날아갔다고 대조적으로 표현하며 임과 이별한 상황을 나타내 준다.
- ③ 6행에서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였다고 한 것은 화자가 만남이 이별을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④ 7행에서 '슬픔의 힘을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다는 것은 이별로 인한 슬픔이 임과 재회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을 형상화한 것이다.

3 시적 맥락을 통해 볼 때, 3연의 '너'는 '나'가 그리워하는 대상이고, '나'는 '그리움으로 아픈 사람'을 의미한다. '허수아비'는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는 그리운 사람과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고독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성찰하는 대상으로, '그리움으로 아픈 사람', '나'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1연에서 사랑으로 괴로운 사람은 '겨울 들녘'에서 '빈 공간의 충만'을 보고 '아낌없이 주는 자의 기쁨'을 느끼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 ② 1연에서 '겨울 들녘'에 '떨어진 날알 몇 개'는 수확 이후의 흔적으로, 남에게 줌으로써 기쁨을 느끼게 됨을 깨닫게 하고 있다. 즉, 사랑으로 괴로운 사람에게 '빈 공간의 충만'과 '아낌없이 주는 자의 기쁨'을 알게 해 주는 소재이다.
- ③ 2연에서 '먼 별을 우러르는 / 돛병의 눈빛'은 영원한 만남을 회구하는 존재로, '이별을 슬퍼하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있다.
- ④ 3연에서 그리움으로 아픈 사람은 '겨울 들녘'에서 빈 들을 쓸쓸히 지키는 '허수아비'를 통해 '홀로 있음으로 오히려 더불어 있게 된 자의 성찰', 즉 고독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 심화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북어

본문 46~47쪽

1 ⑤ 2 ① 3 ④

**개념 연계** **개념 7 역설과 반어** : 어떤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는 작품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가)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억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고, (나)에서는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현대인에 대한 비판적, 풍자적 어조를 통해 무기력한 현대인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 제시된 반어적 표현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7가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해제]** 이 작품은 1980년대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애국가를 불러야 했던 시대를 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애국가가 극장 안에 울려 퍼지고 화면에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가는 새 떼들이 나오는데, 화자는 새들처럼 세상 밖으로 떠나고 싶지만 결국 현실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음을 자각하고 절망한다. 이 작품에서는 강요에 의해 애국가를 듣는 것을 '경청'하는 것으로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억압적 현실을 '삼천리 화려 강산'으로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자유를 억압당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주제]** 암울한 현실에 대한 좌절감

**[작품 핵심 보기]**

• '흰 새 떼들'과 '우리'의 대조

흰 새 떼들	우리
- 현실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 - 화자의 처지와 상반된 부러움의 대상	- 현실에 구속되어 자유롭지 못한 존재 - 답답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나 그럴 수 없는 존재

### 4나 최승호, '북어'

**[해제]** 이 작품은 식료품 가게에 진열된 '북어'를 통해 현대인의 일상적인 모습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화자는 북어의 말라비틀어진 모습을 묘사하면서, 꼬챙이에 꿰여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북어의 모습을 비판한다. 그러나 북어가 자신을 향해 소리치는 상상적 전환을 통해 자신이 비판하던 북어의 모습이 곧 자신의 모습임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무기력한 현대인을 비판함과 동시에 비판의 대상에 화자 자신을 포함시킴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 무기력한 현대인에 대한 비판과 반성

**[작품 핵심 보기]**

• '북어'와 현대인의 동일성

북어	현대인
나란히 꼬챙이에 꿰여 있으며 딱딱한 혀와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뺨뺨한 지느러미를 지닌.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게 살며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침묵함.

1 (가)와 (나)는 모두 비판적, 풍자적 어조를 통해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가 자신이 비판했던 북어의 모습이 곧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고 있다는 점에서 반성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나, (가)에서는 현실에 대한 비판만이 드러날 뿐 화자의 반성적 어조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가)에서는 '자기들끼리 기록거리면서 / 자기들끼리 낚시대면서', '우리들끼리 / 낚시대면서 / 낚시대면서' 등에서 비슷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며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나)에서는 '나란히 꼬챙이에 꿰여져 있었다', '한 개의 혀가 /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뺨뺨한 지느러미' 등에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인 '북어'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 (가)에서는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이라는 시구를 통해 억압적 현실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무기력하고 무비판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만이 드러날 뿐, 화자가 소망하는 바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
- (나)에서는 (가)와 달리 시적 대상인 '북어'가 화자에게 '거봐, 너도 북어지'라고 말하는 상상적 요소를 삽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에게도 현대인의 부정적인 모습이 있음을 깨닫고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2 '삼천리 화려 강산'은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 세계가 아니라 억압적 현실과는 동떨어진 애국가의 가사로, 자유를 빼앗는 강압적인 현실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가)는 이러한 반어적 표현을 통해 부정적인 현실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 화자는 자유롭게 날아가는 '흰 새 떼들'을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와 대조함으로써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 '흰 새 떼들'이 서로 '끼룩'대고 '깁깁'대는 모습은 부정적 현실인 '이 세상'에 대한 조롱이자 냉소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주저앉는' 것은 '앉는' 것보다 더 큰 절망을 내포한다. 따라서 새처럼 자유롭게 '이 세상'을 떠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주저앉는다'고 한 것은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 실제로 '흰 새 떼들'은 화면에서 사라질 뿐이지만, 화자는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날아간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자 새처럼 자유롭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담긴 것이다.

3 시상이 전개되면서 '북어'의 모습을 비판하던 '나'는 '북어'에게 연민을 느낀다. 작품의 후반부에서 화자는 '북어'가 부르짖는 소리를 환청으로 들으며 자신이 비판했던 '북어'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임을 자각하고 있다.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면서 '북어'에 대한 '나'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화자는 자신이 무기력하고 꿈이 없는 존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를 '북어'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작품의 전반부에서 '나'는 '북어'를 자갈처럼 딱딱한 '한 개의 혀', '말의 변비증 앓는 사람들', '무덤 속의 병어리' 등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는 '북어'로 비유된 현대인의 획일화되고 무기력한 모습을 비판한 것이다.
- 작품의 전반부에서 '북어'를 관찰하던 화자는 후반부에서는 자신에게 시선을 돌려 자신의 무기력함과 획일화된 모습을 비판하고 반성하고 있다.
- 화자는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과 '뺨뺨한 지느러미'를 가진 '북어'의 외양을 관찰하면서 '헤엄쳐 갈' 곳이 없는 '북어'에게 '불쌍하다고' 연민을 느끼고 있다.

## 기본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 그림움

본문 48~49쪽

1 ⑤ 2 ③ 3 ①

개념 확인 문제 1 ○ 2 순수, 환상적 3 주관적 반응

**개념 연계** **개념 8 발상과 표현** : 시에서 화자의 정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다른 대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환기시키거나 대상을 화자 개인의 주관에 의해 변용하는 등 독특한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가)와 (나)에서는 작가의 독특한 발상과 표현을 통해 효과적으로 화자의 정서와 작품의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각 작품에서 어떤 발상과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비교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가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해제]** 이 작품은 눈이 내리는 겨울을 배경으로 하여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순수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하는 화자는 내리는 '눈'을 보며 '흰 당나귀'를 타고 '나타샤'와 함께 세상을 벗어나 '산골'에 가서 사는 것을 꿈꾼다. 여기에서 '눈'과 '흰 당나귀'는 모두 흰색의 이미지로 연약하지만 순수한 세계를 표방하며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화자는 4연에 이르러서 자신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경을 떠올리며 행복감에 젖는데, 이러한 행복감을 '흰 당나귀'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섬세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통해 현실적인 한계와 절망을 벗어나 순수한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순수하고 환상적인 사랑에 대한 소망

**[작품 핵심 보기]**

• '눈'의 역할

눈

- 세상으로부터 산골을 차단함.
- 흰색의 이미지로 화자의 순수한 내면을 강조함.
- 나타샤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환기하고 심화함.

## 나 이용악, '그림움'

**[해제]** 이 작품은 해방 직후에 혼자 서울에서 외롭게 생활하던 작가가 북쪽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작품의 주된 정서인 '그림움'은 '눈'이라는 시어를 통해 압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화자는 지금 있는 곳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가족들이 사는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이 내리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눈'은 시련과 고난의 이미지로 사용되지만, 이 작품에서는 포근하고 아늑한 이미지로 나타나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잉크병'마저 얼어붙게 하는 혹독한 추위는 역설적으로 화자의 따뜻한 가족애를 드러내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주제]** 추운 겨울밤에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작품 핵심 보기]**

• 수미 상관의 구조

1연과 5연

북쪽 마을에 '눈'이 내리는지 반복하여 물음.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함.

를 사용하여 대상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며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의 화자는 각각 시적 대상인 '나타샤'와 '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시적 대상과 교감하고 있지는 않다.
- ② (가)에 드러나는 '세상'에서 '산골'로의 이동은 화자의 바람일 뿐이므로 실제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나) 역시 화자가 고향으로 향하는 장면이 2연에 형상화되어 있지만 그것은 화자의 상상일 뿐이며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③ (가)의 화자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결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나)의 화자는 그 리운 '너'를 만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으나, 역시 이에 대한 대결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가)는 '나타샤', '흰 당나귀' 등의 이국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나)에는 이국적인 소재가 사용되지 않았다.

**2** (가)에서 '눈'은 '나타샤'에 대한 화자의 상념을 깊어지게 하며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재일 뿐, 화자가 '눈'을 통해 '나타샤'에게 마음을 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화자는 4연에서 '나타샤'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나타샤'와 재회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눈'이 내리는 것은 자연 현상이지만, (가)의 화자는 '오늘밤'에 '눈'이 내리는 이유를 '가난한 내가 /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리는 '눈'에 부재하는 사랑에 대한 그리움, 아련함 등의 주관적인 정서를 투영하고 있다.
- ② (가)의 화자가 가고자 하는 '산골'은 '눈'이 '뚝뚝 쌓이는 밤'에 '흰 당나귀'를 타고 가야 하는 곳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를 통해 '눈'과 '흰 당나귀'의 흰색 이미지가 중첩되며 '산골'이 순수한 세계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④ (나)의 1~3연에서는 시상의 전개에 따라 '눈'을 '함박눈', '복된 눈'으로 변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너'가 있는 '작은 마을'에 내리는 '눈'이 축복의 눈이기를 기원하는 화자의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나)의 5연에서는 1연에서의 화자의 물음을 반복하는 수미 상관의 구조를 통해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다.

**3** ㉠에서 '소주'는 화자의 고독한 정서를 드러내는 소재로 과거 회상의 매개체라고 보기 어렵다. ㉡ 다음에 이어지는 화자의 상념은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타샤'와 함께 '산골'로 가 살고 싶다는 바람에 대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② ㉢에서 화자는 '나타샤'의 말을 빌려 '산골'로 가는 것이 '세상'이 더러워서 '세상'을 먼저 버리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즉, 현실을 능동적으로 버렸음을 강조함으로써 현실 도피의 명분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 ③ ㉢에서 화자는 '나타샤'와 만나게 되었을 때의 행복감을 '흰 당나귀'가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흰 당나귀'라는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나타내고 있다.
- ④ ㉢에서는 '굽이굽이'나 '느릿느릿'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고향으로 가는 멀고도 험한 길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⑤ ㉢에서는 혹독한 추위를 '잉크병 얼어드는' 것과 같이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1** (가)와 (나)는 겨울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눈'이라는 시어



## 심화 상한 영혼을 위하여 / 은행나무

본문 50~51쪽

1 ③ 2 ④ 3 ②

**개념 연계** **개념 8 발상과 표현** : 추상적인 관념이나 대상을 나타낼 때는 감각적 이미지로 바꾸어 표현하거나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하면 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가)와 (나)에는 화자가 추구하는 신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독특한 발상과 표현이 나타나 있다. 각 작품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주제를 파악하고 이것이 어떤 발상과 표현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지 주목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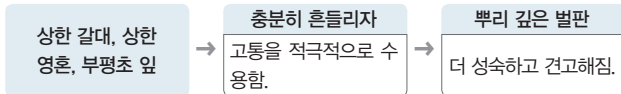
### 가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해제]** 이 작품은 고통이나 시련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견뎌냄으로써 더 깊은 영혼의 성숙을 얻게 될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강한 의지적 어조로 '상한 영혼'에게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고 말하고 있다. 이 작품의 후반부에서 화자는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함께 고통을 이겨 나갈 동반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자'와 같은 청유형 어조와 '~라'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반복하여 현실의 고통에 맞서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믿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 확신과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구, 연쇄, 비유 등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고통을 수용하는 성숙한 삶의 자세

**[작품 핵심 보기]**

• 고통에 대처하는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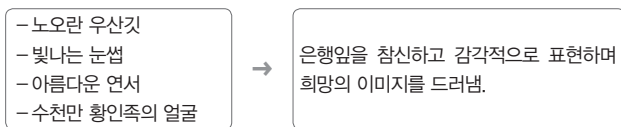
### 나 박재구, '은행나무'

**[해제]** 이 작품은 자연물인 은행나무를 인격화하고 다양한 비유를 활용하여 인간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은행나무의 노란 은행잎을 바라보며, 현재 처한 절망적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희망을 갖자고 다짐하고 있다.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모습을 지켜 나가고 있는 은행나무를 보며 화자는 현실을 이겨 나가겠다는 의지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작품은 은행나무의 아름다움을 통해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주제]** 은행나무를 보고 느끼는 미래에 대한 희망

**[작품 핵심 보기]**

• 은행잎을 비유한 표현



**1** (가)에서는 '갈대', '부평초 잎' 등과 같은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고통을 수용하는 성숙한 삶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은행나무'의 아름다움을 통해 발견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1연의 '고통에게로 가자', 2연의 '가자 고통이며 살 맞대고 가자', 3연의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 /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와 같이 화자의 감정과 태도가 점층적으로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가)는 점층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이러한 점층적 구성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에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는 역설적 발상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나)에는 이러한 역설적 발상이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나)에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와 '은행나무'가 대조를 이룬다고도 볼 수 있으나, (가)에서는 '상한 영혼'과 '갈대', '부평초 잎'이 흔들린다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한 시적 상황의 부각은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볼 수 없다.

⑤ 색채와 관련된 시어는 (가)보다 (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색채의 대비는 드러나지 않고 '노오란', '금빛', '황인족' 등 은행잎과의 색채의 유사성에 근거한 표현이 나타나 있다.

**2** (가)의 2연에서 '지는 해'는 존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이나 부정적인 현실을 상징한다. 따라서 화자의 내면적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는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1연의 '상한 갈대'와 2연의 '부평초 잎'은 흔들리고 있는 대상으로, 이 '흔들리는' 현상을 바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라는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② 1연에서 '밀동 잘리어도'라는 표현에는 '상한 갈대'가 겪는 고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③ 1연에서 화자는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뿌리가 깊다면 흔들려 '밀동'이 잘려도 '새순'이 돋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깊은 '뿌리'는 흔들림과 같은 시련을 견뎌 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⑤ 3연에서 '마주 잡을 손'은 고통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존재들로서 집단적 위대감, 사회적 연대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믿음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은 '고통'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살 맞대고' 갈 수 있는 존재, 즉 구체적 대상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하고 있고, ㉡은 '희망'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불타는 형상'을 지닌 존재로 감각적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공감각적 이미지는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바뀌는 것, 즉 하나의 대상에서 두 개 이상의 감각을 동시에 느끼는 것을 말한다. ㉠과 ㉡에는 이러한 공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은 '고통'에 인격을 부여하여 함께 '살 맞대고 가자'고 하였지만 이를 통해 '고통'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에는 의인화의 기법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고통'과 '희망'은 상징적 시어가 아니라 추상적인 관념어이며, ㉠과 ㉡ 모두 사상 전환의 계기라고 보기 어렵다.

⑤ ㉠에는 '고통'이여에 영탄법이 쓰였지만 의지적 어조가 나타나며, ㉡에도 영탄적 어조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에서는 고통을 수용하는 태도가, ㉡에서는 희망찬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드러나므로 미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1 ④ 2 ⑤ 3 ④

개념 확인 문제 1 시간의 흐름 2 역순행적 3 산평

**개념 연계** **개념 9 시간의 흐름** : 시상을 전개할 때는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가)와 (나)는 모두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가)는 밤에서 아침이 되기까지의 시간이 순차적으로 구성되고 있다면, (나)는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의 순서가 뒤바뀌어 역순행적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가)와 (나) 각 작품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상 전개 양상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비교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조지훈, '낙화(落花)'

**[해제]** 이 작품은 화자가 꽃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애상감을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꽃을 지게 하는 바람을 탓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꽃이 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자연의 질서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화자는 언젠가는 지기 마련인 꽃의 소멸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삶의 무상함과 비애를 표출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모든 연이 2행 4음보로 이루어져 있어서 형태상으로 안정감과 균형감을 주고 있다. 밤과 새벽, 아침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1~6연에서 낙화의 풍경을 제시하고 7~9연에서 낙화를 통해 느끼는 비애감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주제]** 꽃이 지는 것을 바라보며 느끼는 비애감

**[작품 핵심 보기]**

• '낙화'의 사상 전개 방식

**나** 백석, '여승(女僧)'

**[해제]**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에 파괴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한 여인의 삶을 통해 보여 줌으로써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은 여인이 여승이 되어 화자를 만나게 된 현재의 상황이 1연에 먼저 제시되고, 여인이 여승이 되기까지의 과거의 삶의 궤적이 2~4연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역순행적(회상적) 구성 방식은 작품의 서사적 성격을 더욱 극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주고 있다. 화자는 관찰자적 입장에서 감정을 절제하면서 여인의 생애를 압축하여 전달함으로써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여인이 겪었던 비극적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 연에서는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모습과 눈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중첩시키면서 여인이 여승이 되는 장면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여운을 주면서 사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가족 공동체의 붕괴로 인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

**[작품 핵심 보기]**

• 역순행적 구성 방식

연	시간	순서	주요 내용
1연	현재	④	여승이 된 여인과 화자의 대면
2연	과거	①	옥수수를 팔던 여인
3연	과거	②	여인의 가족이 해체됨.
4연	과거	③	여승이 되기로 결심한 여인

**1** (가)는 '주렴 밖에 성긴 별이 / 하나 둘 스러지'는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과 '꽃이 지는 아침'까지의 시간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시상이 전개되고 있고, (나)는 현재에서 과거의 순서로 시상이 전개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사상 전개에서 시간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화자의 정서를 9연에서 '울고 싶어라'라고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나) 역시 1연에서 화자의 정서를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라고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낙화를 보며 자신의 내면세계를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나)의 화자는 내면을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 ③ (가)에서는 화자가 꽃이 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애상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자연물이 시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나)에서는 여인의 비극적인 삶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특정 인물이 시상을 유발하고 있다.
- ⑤ (가)는 한 연을 2행으로 규칙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정제된 형식미를 주고 있으나, (나)는 이러한 규칙적인 시행 배열이 나타나지 않는다.

**2** (가)에서 화자는 자신을 '묻혀서 사는 이'라고 표현하여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는 자신의 '고운 마음'이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는 세상을 피하여 자연에 꽃과 같이 묻혀 살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것일 뿐, 자신을 자연에 은둔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꽃'이 저도 '바람'을 탓하지 않는 것에는 피어난 꽃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떨어지리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즉,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 ② '별'이 지는 새벽 시간에 우는 '귀족도 울음'은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낙화를 바라보며 느낀 화자의 애상감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③ '춧불을 꺼야 하리'라는 물음은 방 안의 '춧불'을 끄지 않고 꽃이 지는 모습을 더 지켜보려는 화자의 관조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하얀 방문이 '꽃 지는 그림자'에 의해 붉어졌다고 묘사함으로써 사라져 가는 꽃의 붉은 빛깔과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3** '여승(女僧)'이 겪은 삶을 고려할 때, '여인(女人)'이 불교에 귀의한 이유가 현실의 비극적 삶으로 인한 고통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여승'이 됨으로써 '여인'이 비극적 삶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자가 믿고 있는지의 여부는 (나)와 <보기>의 내용만으로는 추측하기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오랜만에 만난 '여승(女僧)'의 얼굴이 많이 늙은 것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그간 '여인'의 삶이 힘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② '여인'의 '지아비'가 가족의 곁으로 돌아와 정착하지 못하는 것에서 유랑하며 힘겨운 삶을 살았던 당대 우리 민족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③ '어린 딸'의 죽음은 가족 공동체의 붕괴를 보여 주는 것으로, 독자들에게 슬픔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 ⑤ '여승(女僧)'의 비극적인 삶은 화자로 하여금 '서러워'지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한 개인으로서의 '여인'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의 반응일 수도 있지만,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였을 때 '여인'의 삶은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심화 생의 감각 / 광야

본문 54~55쪽

1 ② 2 ③ 3 ②

**개념 연계** **개념 9 시간의 흐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할 때는 시간의 순서대로 전개하는 순행적 방식과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전개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 있다. (가)는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현재에서 과거의 경험으로 시상이 역순행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나)는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화자의 정서 및 태도가 시상 전개 과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가 김광섭, '생(生)의 감각(感覺)'

**[해제]** 이 작품은 고혈압으로 쓰러져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극적으로 깨어나게 된 시인이 소생의 순간에 느낀 것을 바탕으로 쓴 시이다. 이 시의 화자는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 내가 존재함으로써 세계가 의미를 지닌다는 새로운 자각과 함께 생명을 향한 강한 의지를 회복하게 된다. 내용상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작품은, 병마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 새로운 생의 감각을 발견하게 된 과거(3, 4연)와 다시 깨어난 후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느끼는 현재 삶에 대한 인식(1, 2연)이 '현재 - 과거'의 순서로, 즉 시간의 역순행적 구성에 따라 제시되어 있다.

**[주제]** 절망의 경험 끝에 되찾게 된 생의 감각, 생명의 신비로운 부활

**[작품 핵심 보기]**

• 역순행적 구성 방식

현재	→	과거	→	과거
1~2연		3연		4연
생(生)에 대한 깨달음		절망적인 상황		새로운 발견

### 나 이육사, '광야(曠野)'

**[해제]** 이 작품은 '광야'라는 광활한 공간과 태초로부터 먼 미래까지의 아득한 시간을 바탕으로, 일제 강점기의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미래 지향적인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까마득한 날에 시작된 역사와 문명을 묘사하면서 현재 비록 비극적이고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언젠가는 밝은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희생 의지를 다지고 있다. '과거 - 현재 - 미래'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상징적 의미를 가진 시어와 의지적인 어조를 통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

**[작품 핵심 보기]**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과거	1~3연	까마득한 날의 역사와 문명의 탄생
↓		
현재	4연	암울한 현실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화자의 희생 의지
↓		
미래	5연	'초인'이 이루어 내는 희망적 미래

**1** (가)에는 죽음을 오가는 절망적인 투병 생활에서도 화자는 생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나)에는 암울한 현실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희생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나)는 '뿌려라', '부르게 하리라'에서 명령형 종결 어미 '-라'를 사용하여 현실 극복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나, (가)는 '-다'와 같은 평서형 종결 어미만을 사용하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대상이나 대상과 합일을 지향하는 화자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가)는 현재 상태에서 과거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과거 회상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과거의 경험은 좌절과 절망의 경험으로 화자는 그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지 않다. (나)는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순차적으로 시상이 전개되어 과거 회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가)에는 인간사와 자연사의 대비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나)는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조화시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인간사와 자연사가 대비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가)의 3연에서 '푸른 빛'은 '깨진 하늘'이 아무는 상황에서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하는 좌절로 인해 '황야에 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깨진 하늘'이 아물기를 바라는 화자의 희망과 연관 짓거나 현재의 깨달음을 얻게 된 기반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1~2연에서는 현재 시제가, 3~4연에서는 과거 시제가 사용되어, 이 작품에서의 시간 구성이 역순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가)의 1~2연에서 화자는 '여명의 종', '새벽 별'과 함께 주변의 '사람들', '닭', '개',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데, 이들 존재가 모두 자신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 ④ (나)의 1~2연에서 광야의 광활함과 신성성을 형상화하고 3연에서 그 광야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태동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광야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한 신성하고 광활한 땅으로서 4연에 제시된 현재의 암울한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화자는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며, 미래에는 '초인'이 민족의 땅인 광야에서 이상을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를 명령형의 어미를 통해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다.

**3** (가)에서 화자는 좌절과 절망을 겪는 중에도 '채송화'를 보고 생의 감각을 되찾고 있다. 따라서 '채송화'는 화자에게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일깨워 주고 생의 의지를 다지게 하는 대상이다.

**지식 더하기**

#### 김광섭의 작품 세계

김광섭은 초기에는 꿈과 관념의 세계를 노래하거나 일제 강점기의 시대 상황으로 인한 고독, 허무, 불안이 반영된 작품을 썼다. 후기에는 인생, 자연, 문명에 대한 통찰을 드러내거나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을 주로 썼는데, 이때 관념을 예술적으로 세련되게 승화시킨 원숙한 경지를 보여 주었다. '생의 감각'은 1965년 김광섭이 고혈압으로 쓰러져 1주일 동안 무의식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이렇게 투병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시인이 평소에도 관념의 세계를 즐겨 다루고 관조하면서 몰두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기본 나무 / 동승

본문 56~57쪽

1 ③ 2 ⑤ 3 ③

개념 확인 문제 1 나무 2 동질감

**개념 연계 개념 10 시선이나 공간의 이동** : 다양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나 정서 변화를 나타낼 때는 공간의 이동이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는 화자가 여행 중에 만나게 된 시적 대상으로부터 받은 인상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타내는 한편 화자의 시선을 외부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관찰과 자신의 태도에 대한 반성을 시선의 이동에 따라 나타내고 있다. (가)와 (나) 각 작품에서 화자의 시선이나 공간의 이동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가 박목월, '나무'

**[해제]** 이 작품은 유성에서 서울까지의 여정 속에서 화자가 목격한 나무들의 다양한 인상을 통해 인간 삶의 근원적 고독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화자는 여행 중 나무에게서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이미지를 보고, 묵중하고 침울하고 고독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온 후 화자는 이러한 나무들의 모습이 곧 자신의 내면적 속성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외부로 향해 있던 시선을 내부로 돌림으로써 화자는 자신의 삶의 본질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화자는 나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이 고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주제]** 나무를 통한 인생의 성찰

**[작품 핵심 보기]**

• 여정에 따른 화자의 시선 이동

행	여정	화자의 시선
1행	유성 → 조치원	외부
2행	조치원 → 공주	
3행	공주 → 온양	
4행	온양 → 서울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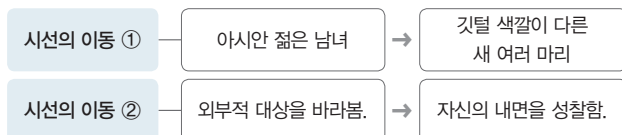
## 나 하종오, '동승(同乘)'

**[해제]** 이 작품은 화자가 아시안 젊은 남녀와 국철에 동승하게 된 사건을 시적 상황으로 하고 있다. 화자는 그들을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시선을 차창 밖으로 돌리게 된다. 차창 밖의 다양한 새들이 함께 어울리는 장면을 보고 화자는 그들을 호기심으로 바라보았던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더욱 깊이 있는 성찰을 하게 된다. 이 작품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를 생각하게 한다.

**[주제]** 아시안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그에 대한 반성

**[작품 핵심 보기]**

• 화자의 시선 이동 양상



1 (가)의 화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적 대상인 '나무'로부터 받은 다양한 인상들이 사실은 자신의 내면적 속성임을 깨닫고, '나무'와 일체감을 느끼고 있다. (나)의 화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적 대상인 '아시안 젊은 남녀'와 자신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그들과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와 대상 간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유성에서 서울로 이르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며, 이동 도중에 화자가 목격한 '나무'의 다양한 속성과 이미지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화자가 있는 공간이 '국철' 안으로 유지되며 대상의 다양한 속성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② (가)와 (나)의 화자는 자신이 겪은 상황과 그에 대한 정서를 서술하고 있을 뿐,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답을 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의 화자는 외부의 '나무'에게 시선을 주다가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으므로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의 화자는 국철 안의 아시안 젊은 남녀를 쳐다보다가 차창 밖의 새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으므로, 오히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이 이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첫 행과 마지막 행이 다른 형식으로 나타나므로 형식적 통일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2 상승적 이미지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느낌을 주어 긍정적인 분위기를 환기하는 이미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승적 이미지를 보여 주는 시어는 (가)에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명청하게 물려 있는', '어설픈 과객', '묵중한 그들', '침울한 그들' 등과 같이 '나무'를 의인화하여 나무를 바라보는 화자의 정서를 투영하고 있다.

② 화자는 특정한 대상을 청자로 설정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독백적 어조로 서술하며 시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③ 1~3행은 모두 유사한 통사 구조를 사용하여 산문적 율격을 형성하고 있다.

④ 4행에서 '아아'라는 감탄사를 통해 고독함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3 [C]에서 화자의 시선이 차창 밖으로 황급하게 옮겨 간 것은 '아시안 젊은 남녀'를 바라보던 자신의 시선이 천박한 호기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 그들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국철을 타고 가던 화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시적 대상인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 시선을 주게 된다.

② 5행에서 '나는 잔무 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고 하였는데, '저들이 무엇 하려고 /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하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과 그들의 처지가 다르다고 시적 대상에게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화자는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서 시선을 거두어 차창 밖 강가에 있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적 대상이 변경되고 있다.

⑤ 화자가 차창 밖의 새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화자의 시선이 외부의 대상에서 화자 자신의 내면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심화 농무 / 고향

본문 58~59쪽

1 ⑤ 2 ③ 3 ⑤

**개념 연계 개념 10 사선이나 공간의 이동** : (가)와 (나)는 공간의 의미가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고, (나)는 특정 공간을 시적 대상으로 삼아 그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7가 신경림, '농무(農舞)'

**[해제]** 이 작품은 산업화로 인해 붕괴되어 가는 농촌 공동체의 모순적인 현실을 흥겨운 농무를 통해 역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농촌 생활은 이미 저물어 가고 있고, 농민들은 파괴되어 가는 농촌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 고뇌를 모두 잊고자 농무를 신명 나게 추지만 공연이 끝난 후 소숫집에서 술을 마시는 농민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허탈감뿐이다. 농민들은 이러한 허탈감과 원통함을 안고 농무를 추면서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까지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들의 한(恨)이 신명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흥겨움을 보여 주지만 이면적으로는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는 반어의 기법으로 시적 상황을 더욱 강렬하게 나타내고 있다.

**[주제]** 파괴되어 가는 농촌 현실에 대한 한과 분노

**[작품 핵심 보기]**

•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

공간	농민들의 정서
텅 빈 운동장	허무함, 쓸쓸함
↓	
소숫집	답답함, 원통함
↓	
장거리	서글픔, 자괴감
↓	
쇠전, 도수장	분노, 울분

정서의  
고조

### 나 정지용, '고향'

**[해제]** 이 작품은 고향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고향에 돌아왔으나, 그리워하던 고향의 모습이 아님을 깨닫고 서글픔과 허망함을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물리적인 고향의 환경은 크게 변한 것이 없지만, 고향을 대하는 화자의 정서에는 지나간 세월만큼의 변화가 있다. 이 작품에서는 고향에 대한 화자의 쓸쓸한 정서를 다양한 자연물과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그리운 고향에 대한 상실감

**[작품 핵심 보기]**

• 고향의 모습과 화자의 인식 간의 대조

변하지 않은 고향의 모습	고향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
산뿔, 뺨꾸기, 흰 점 꽃, 푸른 하늘 등 고향의 자연은 그대로임.	예전과 달리 고향을 낯설게 여기며 상실감과 허무함을 느낀.
↓	↓
자연의 불변성	인간의 가변성

1 (가)에서는 '원통하다', '울부짖고',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등의 부정적 시어를 사용하여 산업화로 인해 피폐해진 농촌의 모습과 그에 따른 화자의 울분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아니려뇨', '지니지 않고', '아니 나고' 등과 같은 부정적 시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그리워하던 고향의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의 화자는 담담한 어조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을 뿐, 단정적인 어조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 ② (가)는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체념적인 정서를 강조하고 있지만,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나)는 1연 1행과 6연 1행을 동일하게 배치하여 수미 상관의 구성을 취하고 있지만, (가)는 이러한 수미 상관의 구성을 취하고 있지 않다.
- ④ (나)에서는 '흰 점 꽃', '농푸르구나'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 '뺨꾸기 제철에 울 건만', '풀리리 소리'와 같은 청각적 이미지, '쓰디쓰다'와 같은 미각적 이미지 등 다양한 이미지가 드러나 있으나, 공감각적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가) 역시 공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2 '장거리' ③에서는 쪼무래기들만 따라붙어 악을 쓰고 처녀에 들이 칠댄다고 표현함으로써 청년들이 떠난 농촌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아울러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라는 표현을 통해 농촌의 모순된 현실이 드러나며, 이에 대한 농민들의 체념적인 태도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라는 표현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③에서는 농무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텅 빈'이라는 수식어가 붙음으로써 쓸쓸함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
- ② 화자는 학교 앞 '소숫집' ⑥에서 술을 마시며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라는 절망적인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④ '쇠전'과 '도수장' ⑨은 화자의 울분이 최고조에 이르는 공간인데, 이 앞에서 신명이 난다고 함으로써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운동장' ③에서 '소숫집'과 '쇠전'을 거쳐 '도수장' ⑨까지 공간이 변화될 때, 이와 함께 화자의 정서도 '쓸쓸함 → 답답함과 원통함 → 자괴감 → 분노와 울분'으로 점점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나)에서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라는 시구에는 그리던 '고향' ①을 찾을 수 없는 현재의 '고향' ⑦에서의 화자의 상실감이 나타나 있을 뿐, 현재의 고향을 예전의 고향으로 회복시키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현재 화자가 위치한 '고향' ⑦과 화자가 그리던 '고향' ①은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을 의미한다.
- ② '산뿔', '뺨꾸기', '흰 점 꽃'은 화자가 그리워하던 어린 시절의 고향의 모습을 환기하는 자연물이다.
- ③ 화자는 그리던 '고향' ①을 생각하며 현재의 '고향' ⑦에 왔지만, 자신이 생각하던 고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 ④ 현재의 '고향' ⑦과 그리던 '고향' ① 간의 괴리를 경험하게 된 화자는 방황하는 자신의 마음을 '떠도는 구름'에 비유하고 있다.

## 기본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새벽 편지

본문 60~61쪽

1 ⑤ 2 ⑤ 3 ③

개념 확인 문제 1 객관적 2 별, 편지

**개념 연계 개념 11 수미 상관과 기승전결** : 시상을 전개할 때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형식을 통일하는 것은 구조적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시적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 (가)와 (나)는 모두 작품의 처음과 끝에 같거나 비슷한 시구를 배열하여 시상을 전개하는 수미 상관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 내용 면이나 형식 면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가 이옥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해제]** 이 작품은 객지에서 맞이한 아버지의 임종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이국 땅으로 유랑해야만 했던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과 그로 인한 가족의 슬픔을 담담한 어조와 객관적인 태도로 감정을 절제하며 드러내고 있다. '아버지의 죽음'은 '얼음장에 누운 듯 손발은 식어 갈 뿐 /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눈빛 미명은 고요히 / 낮을 덮었다'와 같이 시종일관 객관적으로 제시되고,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들의 울음소리도 '풀벌레 소리'로 대체되어, 서러움과 한(恨)의 정서가 최대한 절제되고 있다.

**[주제]**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과 유랑민의 비애

**[작품 핵심 보기]**

• 시적 상황의 객관적 제시

- 한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음.	- 다시 뜨시잖는 두 눈
- 손발이 식어 감.	- 심장의 영원한 정지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감정을 절제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함.

### 나 박재규, '새벽 편지'

**[해제]** 이 작품은 새벽에 별을 바라보며 깨달은 새벽의 의미와 다가올 세상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며 세상 어디엔가 존재할 '사랑'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사는 존재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다짐하고 있다. 작품의 첫 부분에 제시된 '사랑'에 대한 신뢰와 소망의 정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희망'으로 변주되면서, 결국 화자가 소망하는 세상은 사랑과 희망으로 충만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갖는 사랑과 희망에 대한 기대

**[작품 핵심 보기]**

• '새벽 편지'에 담긴 의미

새벽	편지
밤을 견디고 밝아 올 아침을 기다리는 시간 → 새로운 희망 의미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수단 → 이웃에 대한 연민과 사랑 의미

↓

마음을 전해 주는 매개체로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냄.

**1** (가)와 (나) 모두 작품의 첫 부분과 끝부분에 상응하는 표현을 배열하는 수미 상관의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수미 상관의 구성은 작품 전체에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며,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서나 상황을 반복적으로 드러내어 강조의 효과를 준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2연과 (나)의 10~12행에서 어순의 도치가 드러나 있으나,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는 것은 (나)뿐이다.
- ② (가)와 (나) 모두 화자의 독백체로 진술되어 있으며, 청자를 상정한 대화체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가)와 (나) 모두 대부분의 시행이 '-다'의 평서형 종결 어미로 끝맺는 형태로 서술되고 있다.
- ④ (나)에서는 '새벽'과 '아침'이 각각 어둠과 밝음의 이미지를 지녀 대조를 이루고 있으나, '새벽'은 '아침'을 기다리며 연민과 사랑, 열정을 깨닫는 시간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 이들의 대조가 화자의 정서 변화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에서는 어둠과 밝음의 이미지를 대조한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2** 3연의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는 죽음으로 인해 펼치지 못하고 스러져 버린 생전의 아버지가 지냈을 꿈과 소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구를 통해 아버지가 북방으로 이주해야 했던 이유를 추측해 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 ① 1연에서는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한 공간을 우리 집도, 일가 집도, 고향은 더욱 아닌 곳이라고 반복, 확장함으로써 조국을 잃고 떠난 타향에서 맞이한 비참한 아버지의 죽음을 부각하고 있다.
- ② 1~2연에서 반복되는 '아니다', '없다', '있다'와 같은 부정과 결여의 의미를 지닌 시어들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상황과 관련되어 비극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노령(露領)', '아무를 만(灣)', '니코리스크'는 모두 러시아 지역을 가리키는 시어로, 아버지가 생전에 유랑하던 삶의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④ 2연에 나타난 러시아 영토를 다니면서까지 자신들을 키운 생전 아버지의 모습은 험난한 유랑의 삶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은 1, 3, 4연에서 객지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 상황과 연결되어 비극성을 자아내고 있다.

**3** (나)의 5행에 제시된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은 고달프고 험겨운 현실을 규정짓는 속성으로, '새벽'은 이러한 삶에 대한 연민과 사랑, 열정을 깨닫는 시간이다. 그러나 (나)에서 화자로 하여금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을 느끼게 했던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화자는 1~4행과 15~18행에서 새벽에 깨어나 별을 보며 이 세상 어디에 '사랑의 샘', '희망의 샘'이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고 하였다.
- ② 화자가 바라보는 '반짝이는 별'은 6행에서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과 연결되는데, 이는 곧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슬픔과 연민을 느끼는 존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벽'은 그러한 존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④ 8~9행을 통해 '새벽'은 '우리들 가슴'의 '깊숙한 뜨거운', 즉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뜨거운 사랑과 열정의 존재를 인식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⑤ 화자는 10행에서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밝아 올 아침의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라고 하였다.

## 심화 절정 / 향연

본문 62~63쪽

1 ⑤ 2 ③ 3 ④

**개념 연계 개념 11 수미 상관과 기승전결** : 시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 기승전결이나 선경 후정의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가)와 (나)는 각기 다른 시상 전개 양상을 띠고 있다. 총 4연인 (가)는 각 연이 기승전결에 대응하는 시상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고, (나)는 선경 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시상 전개 양상을 보이지만, 시상이 전환되는 지점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므로 이에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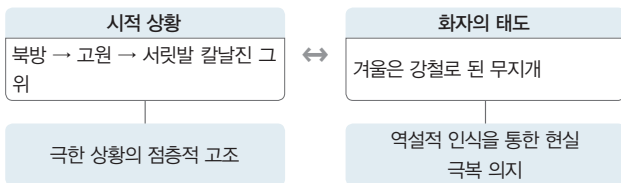
### 가 이육사, '절정(絶頂)'

**[해제]**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초극하고자 하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화자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북방', '고원'과 같은 공간으로 구체화하면서,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서릿발 칼날진 그 위',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와 같은 시구를 통해 이들 공간의 한계성과 긴박함을 강조하고 있다. 화자는 자신을 둘러싼 외부의 현실을 '눈 감아' 생각함으로써 인식의 전환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 전환의 결과는 마지막 행의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와 같은 시구를 통해 역설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겨울'은 '강철'로 이루어져 강인한 것으로 느껴지지만 동시에 '무지개'와 같이 일시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화자의 현실 초극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주제]** 극한 상황의 극복 의지

**[작품 핵심 보기]**

• 시적 상황과 화자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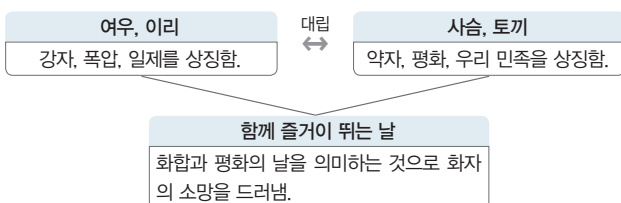
### 나 박두진, '향연(香峴)'

**[해제]** 이 작품은 화자를 둘러싼 암담한 현실을 '산'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비유하여 그 침묵이 깨어질 날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1930년대 후반 우리 사회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는 일제의 탄압이 극심했던 암흑기였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의 시어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 시도 상징적 수법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화자는 중첩된 산의 모습을 통해 미래의 낙관적 전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근거로 온갖 동식물이 서로 뒤엉켜 갈등하는 모습과 억압된 현실을 침묵하고 있는 태도를 들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타개할 정의의 불꽃, 즉 '화염'을 기대하며, 이로써 찾아올 화합과 평화의 날을 소망하고 있다.

**[주제]** 화합과 평화의 세계에 대한 갈망

**[작품 핵심 보기]**

• 시어의 상징적 의미



1 (가)의 3연 1행에서는 '-나'와 같은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는 상황에서 '무릎'을 꿇는 것 역시 불가능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나)의 4~5연에서는 '-으랴'라는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소망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나)에서는 '산이여'와 같은 호칭을 통해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가)에는 대상과의 친밀감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④ (가)와 (나) 모두 현재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드러내고 있을 뿐, 과거 회상이나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인식이나 소망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 ③ (가)에서는 '북방(北方)',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진 그 위'와 같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를 통해 극단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고, (나)에서는 '산'과 같은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이상 세계를 그리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일상적 소재를 중심으로 하여 화자의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가)의 화자는 3연에서 자신을 둘러싼 외부적인 상황을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자의 절망적 인식은 4연의 '이러매'를 기점으로 전환된다. 화자는 '겨울'과 같은 비극적 상황을 '강철로 된 무지개'로 규정하면서 절망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북방(北方)'에서 다시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진 그 위'로 이어지는 공간을 통해 화자를 둘러싼 압박이 가중되는 극한 상황을 점층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 ② '고원(高原)'을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즉 하늘도 힘에 겨워 달지 못하는 공간으로 규정함으로써 화자를 둘러싼 극한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④ 1연과 2연에서 외부 상황을 제시하고 3연에서 그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므로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를 기점으로 외부에서 내면으로 시상이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시상 전환의 결과, 극단성과 한계성만이 강조되던 '겨울'이라는 화자의 주변 상황이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새로운 인식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확 확 치밀어 오를 화염'은 '침묵(沈黙)'과 대조적 의미 관계를 이루며, 억압 아래 숨죽이고 있는 '침묵(沈黙)'을 타개할 수 있는 정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을 일제의 검열에 대한 작가의 대결 의식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큰 산 그 넘었산'은 자연의 소재에 화자가 염원하는 세계의 상징성을 부여한 것으로, 자연의 소재를 통한 상징적 수법으로 일제의 억압과 검열을 피해 저항 의식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무수한 짐승'은 산을 구성하는 다양한 존재들로, 5연을 보면 화자가 이들의 화합과 공존을 소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화자가 현재의 '산'을 '침묵(沈黙)'의 상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혹독한 시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당시의 암울한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여우 이리 등숙'이 그 폭력성을 상실하고 '사슴 토끼'와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기대한다는 내용은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것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의 근거로 작용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기본 설일 / 껍데기는 가라

본문 64~65쪽

1 ⑤ 2 ⑤ 3 ②

개념 확인 문제 1 시각적 2 맞절

**개념 연계** **개념 12** **관점에 따른 감상** :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는 작품 자체의 내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내재적 관점에 따라 감상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다. (가)는 자연 현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감각적 표현을 통해 형상화하고,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상징적 소재의 반복과 대립적 시어로 주제를 형상화하고, 명령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가)와 (나)는 내재적 관점에 따라 감상할 수 있다. 내재적 관점의 감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7 김남조, '설일(雪日)'

**[해제]** 이 작품은 새해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을 너그럽게 살아가는 다짐을 노래하고 있다. 겨울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자연 현상을 보면서 혼자인 듯 보이는 나무와 바람도 서로 함께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어느 누구도 혼자인 존재는 없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화자는 이를 바탕으로 고독을 극복하고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는 새해의 다짐을 하고 있다.

**[주제]**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려는 새해의 다짐

**[작품 핵심 보기]**

· 화자의 깨달음과 삶에 대한 다짐

시적 대상 관찰(1연)	겨울나무와 바람이 함께 있음을 인식함.
↓	
인식의 확장(2연)	어떤 존재도 혼자서 아님을 인식함.
↓	
깨달음(3연)	삶과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음.
↓	
다짐(4연)	너그럽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다짐함.
↓	
새해를 맞는 마음(5연)	흰 눈을 바라보며 순수한 마음을 가진.

## 4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해제]** 이 작품은 '껍데기'로 상징되는 거짓과 외세, 불의 등을 거부하고 순수함을 지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라'와 같은 명령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화자는 4월 혁명과 동학 농민 운동의 순수한 열정이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우리 민족이 순수한 열정을 회복하여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기를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다.

**[주제]** 순수의 회복을 통한 분단의 극복 염원

**[작품 핵심 보기]**

· 대조적 시어를 통한 주제 강조

순수와 순결	대조	불의와 부정
알맹이, 아우성, 흙 가슴	↔	껍데기, 쇠붙이
↓		
순수한 삶의 회복과 민족의 통일 염원		

1 (나)에 등장하는 '아사달 아사녀'는 불국사 석가탑 창건 설화의 주인공으로 우리 민족을 표상하고 있다. '아사달 아사녀'는 '두 가슴과 그릇'을 내놓은 존재로, 허위와 위선을 떨쳐 버린 순수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에는 특정한 공간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나)는 '곰나루', '이곳', '초례청'과 같은 공간이 나타나 있으나 이들이 대비되고 있지는 않다.
- ② (가)에는 바람에 겨울나무가 흔들리는 일반적인 자연 현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이를 통한 깨달음이 드러나 있으나, (나)에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가)에는 외적 대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고독함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며, (나)에서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적극적인 거부 의지가 표출되고 있으나,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해 내적 갈등을 겪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가)에는 '겨울나무'와 '바람'이 서로 함께하는 존재이듯이, '나'와 '하늘' 역시 함께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을 뿐, 과거의 삶에 대한 회한은 드러나 있지 않다. (나) 역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과 평화와 화합을 이룬 미래에 대한 염원이 나타나 있을 뿐, 과거에 대한 회한은 드러나 있지 않다.

2 (가)의 5연에서는 '새해의 눈시울'이 '승천'하여 '순수의 얼음꽃', 즉 '백설'을 담아 다시 떨어지는 과정을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3행에서는 다른 행에 비해 길이가 길어지면서, '눈물'이 '승천(상승)'했다가 '떨구이는(하강)' 과정을 한 행에 담아내고 있다. 따라서 시행의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바람'을 '머리채 긴', '투명한 빨래처럼 /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와 같이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 ② '혼자는 아니다 /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 나도 아니다'와 같이 유사한 구절을 변용, 반복하여 이 세상에 혼자인 존재는 없다는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3연의 1~2행과 3~4행이 대구를 이루으로써 운율감을 얻고 있다.
- ④ 4연의 3행과 5행에서 '-자'와 같은 청유형 어미를 반복하여 앞으로의 삶에 대한 화자의 다짐을 강조하고 있다.

3 (나)에서 화자는 '4월'과 '동학년 곰나루'에게서 각각 '알맹이'와 '아우성'은 남고 '껍데기'는 가라고 말하고 있다. 즉, '4월'과 '동학년 곰나루'는 순수, 자유 등을 상징하는 '알맹이', '아우성'의 긍정적인 속성과 독재, 불의 등을 상징하는 '껍데기'의 부정적인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껍데기는 가라' 하는 대상인 반면 '알맹이'는 남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이들의 관계는 대조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③ '이곳'은 인간의 은밀한 부분인 '두 가슴과 그릇'까지 내보일 정도로 순수 본연의 상태인 우리 민족이 '중립의 초례청 앞'에서 '부끄럼'을 느끼며 '맞절'을 하는, 즉 화합을 이루어 내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④ '항그러운 흙 가슴'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아야 하는 대상으로, 국토 전체를 관통하는 긍정적 가치를 의미하는 시구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모모든 쇠붙이'는 '껍데기'와 일맥상통하는 소재로, 딱딱하고 차가운 속성을 지니는 대상이다. 이는 화자가 거부하는 부정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본문 66~67쪽

1 ⑤    2 ④    3 ③

**개념 연계** **개념 12** **관점에 따른 감상** :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는 작가나 시대 현실, 독자 등과 같은 작품 외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외재적 관점에 따른 감상이 있다. (가)는 일제 강점기의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치욕스러운 역사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나)는 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여기서 봄은 민주와 자유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와 (나)는 창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작가의 시적 경향이 작품 해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작품들이다. 따라서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배경 및 작가의 현실 인식과 대응 방식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가 윤동주, '참회록'

**[해제]** 이 작품은 한국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화자는 녹이 쓴 구리거울에 비친 자신을 한국민으로 인식하고 이를 욕되다고 평가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이 이런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라 참회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올 광복의 날에 하게 될 참회는 현재의 참회를 '부끄러운 고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화자는 이러한 참회가 가능할 미래의 어느 날을 위해 치열하게 자아를 성찰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결과 거울에 비쳐 오는 자신의 모습은 비록 슬프고 외로운 뒷모습이지만, 광복의 그날까지 화자가 겪어야 할 시련과 고난을 생각하면 이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은 자신의 앞에 놓인 길이 고난의 길임을 예측하면서 그 길을 걷겠다는 작가의 자기회생 의지를 표명한 노래라 할 수 있다.

**[주제]** 자아 성찰과 현실 극복 의지

**[작품 핵심 보기]**

• 화자의 정서 및 태도

과거	현재	미래
나라를 잃은 채 살아가는 삶을 욕되다고 느낌.	무기력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부끄러움을 느낌.	욕된 역사에 대한 책임으로 참회하며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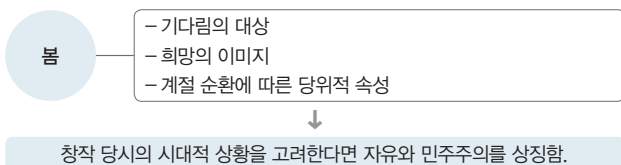
### 나 이성부, '봄'

**[해제]** 이 작품은 새로운 희망의 세계를 '봄'에 빗대어, 계절의 순환에 따라 봄이 반드시 찾아오듯 화자가 원하는 희망의 세계도 반드시 도래하고자 할 것이라는 신념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너'로 의인화된 봄은 억압적 현실을 극복하고 찾아올 자유와 민주를 상징하며, 각성의 매개자인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언젠가는 돌아올 대상이다. 그리하여 화자는 너무나도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다림의 과정을 견뎌 내고 감격스럽게 봄을 맞이하고 있다.

**[주제]** 다가올 새로운 희망의 세계에 대한 신념

**[작품 핵심 보기]**

• '봄'의 상징성



1 (가)의 화자인 '나'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나)의 화자인 '나'는 '너'로 상징된 '봄', 즉 새로운 희망의 세계가 곧 도래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나'라는 화자가 작품 표면에 등장하여 시적 상황과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나)에서는 봄을 '너'로 인격화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지만, (가)에서는 대상을 인격화한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가)에는 '과거 - 현재 - 미래'의 시간적 변화가 드러나 있으나, 이는 화자의 자기 성찰의 과정을 보여 줄 뿐 대상의 이면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나)는 계절이 변화함에 따라 곧 도래할 봄에 대한 화자의 기다림을 나타내고 있을 뿐, 대상의 이면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 ③ (가)는 '파란 녹이 긴 구리거울'에 색채어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역사의 쇠망을 의미하는 부정적 이미지일 뿐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는 색채어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 ④ (가)는 참회의 어조로 화자의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나)는 단정적 어조로 희망찬 미래가 도래할 것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2 (가)와 (나)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미래는 각각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 '너(봄)'와 같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 작가가 지향하는 미래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는 작품에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화자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작가가 느끼는 한국의 슬픔과,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무기력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이 반영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② '봄'은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찾아오는 계절이다. (나)에서는 봄의 이러한 속성을 활용하여 긍정적 미래에 대한 작가의 확고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에는 철저한 자기 성찰을 통해 시대적 양심을 실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무기력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성찰하려는 작가의 인식이 담겨 있다. (나)에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가)와 (나)의 화자 모두 현재의 상황을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 ㉔은 화자의 치열한 자기 성찰의 결과로, 화자가 자기회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슬픈 사람의 뒷모양'에서 힘든 길을 걸어야 할 화자 자신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며 성찰의 결과를 자신에게 국한한다는 점에서, 화자의 모습을 객관화하여 시적 대상을 확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부끄러운 고백'은 2연에 제시된 참회에 대한 평가로, 암울한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밤이면 밤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와 같은 유사한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의 철저한 자기 성찰의 모습과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봄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을 '더디게 더디게'라는 부사어로 표현하고, '마침내'라는 부사어를 통해 반드시 봄이 올 것임을 확신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봄을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으로 비유하여 대상이 오랜 역경의 과정을 거쳐 도래할 수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기본 꽃 / 새

본문 68~69쪽

1 ④ 2 ④ 3 ⑤

개념 확인 문제 1 명명 2 순수한

**개념 연계 개념 13 바꾸어 표현하기** : 작품을 변용하는 것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모두 가능하며, 원작을 패러디하여 새로운 주제를 담거나 다른 갈래로 바꾸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가)에서는 ‘꽃’을 제재로 하여 존재의 본질 구현을 추구하고 있고, (나)에서는 ‘새’를 제재로 하여 자연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문명을 비판하고 있는데, (가)의 경우는 이 작품에 기반한 많은 패러디 작품이 창작되었다. (가)와 (나)에서 내용과 형식 면에서 변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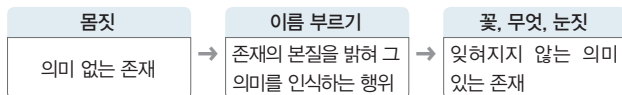
## 가 김춘수, ‘꽃’

**[해제]** 이 작품은 ‘꽃’을 소재로 하여 사물의 존재론적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화자는 이름을 부르기 전과 불러 주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몸짓’에서 ‘꽃’이라는 대상으로서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이어 자신도 ‘꽃’, 즉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소망을 ‘우리들’ 사이에서, 즉 상호 관계에서 실현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주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

**[작품 핵심 보기]**

• 존재의 인식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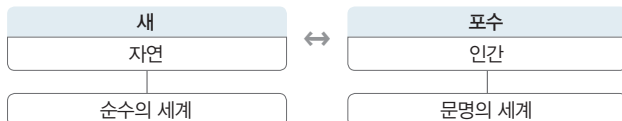
## 나 박남수, ‘새’

**[해제]** 이 작품은 자연과 인간의 의미를 각각 ‘순수함’과 ‘인위, 가식’으로 규정한 후, ‘새’와 ‘포수’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새’는 가식이 없는 순수한 존재이며, 이러한 순수성을 강제로 가지려는 인간의 시도는 결국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즉, 자연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인간의 파괴적 본성을 보여 주면서 인간 문명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순수한 가치의 옹호와 인간과 문명의 파괴성 비판

**[작품 핵심 보기]**

• 이미지의 대립적 구조



1 (가)는 의미 있는 존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인 ‘꽃’을 통해, (나)는 각각 자연의 순수와 인간의 파괴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인 ‘새’와 ‘포수’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1’과 ‘2’에서 ‘새’를 의인화하여 드러내고 있으나, (가)에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한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꽃’과 ‘새’는 자연물이나, (가)와 (나)에서는 이들을 관찰하여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들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③ (가)와 (나) 모두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담담한 어조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2 <보기>의 2~3연은 (가)의 2연에 대응되는 부분으로, 화자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보통 명사’도 ‘수명사’도 아닌 ‘의미의 틀’을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이름을 부르는 행위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화자의 명명 행위의 영향을 점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보기>의 제목은 ‘꽃의 패러디’로, 제목을 통해 이 작품이 (가)를 패러디한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② (가)의 화자가 명명 행위를 ‘본질을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 반해, <보기>의 화자는 ‘대상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③ (가)와 <보기>는 형식적 측면에서는 매우 유사하지만, 주제 및 내용의 측면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의 3~4연은 ‘~고 싶다’와 같이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데 비해, <보기>의 4연에서는 ‘~고 싶어 했다’와 같이 소망을 제시하고 5연에서 소망의 실현 결과로 ‘그’는 존재의 본질을 규명할 수 없는 대상이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보기 | 작품 분석 —

오규원, ‘꽃의 패러디’

**[해제]** 김춘수의 ‘꽃’을 패러디한 작품으로,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 존재의 의미를 구현하고자 하는 ‘꽃’과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작품의 화자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존재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존재의 본질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주제]** 존재를 왜곡시키는 인식 행위

3 ‘새’(㉠)는 순수한 자연의 세계를 의미하고, ‘포수’(㉡)는 파괴적 속성을 지닌 문명의 세계를 의미함으로써 대립적 구조를 형성한다. ⑤에서 ‘순수’는 ‘포수’에게 겨냥된 ‘새’를 의미하며 ‘납’은 인간의 비정함을 의미하므로 서로 대립된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모두 자연의 이미지로 서로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④ ‘교태’와 ‘가식’은 인간을 의미하므로 서로 유사한 의미 관계를 지닌다.

## 심화 신선 재꾼이 / 의자

본문 70~71쪽

1 ③ 2 ④ 3 ④

**개념 연계 개념 13 바꾸어 표현하기** : 작품을 변용하는 것은 작품의 창의적 수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작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가)는 ‘재꾼이’를 보살피는 마을 사람들의 인정을 그린 작품으로 서사적 구성이 특징적이다. (나)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작품으로, 어머니가 깨달은 것을 화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특징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어 시적 정황을 파악해 바꾸어 표현한다면 작품에 대한 창의적 이해가 가능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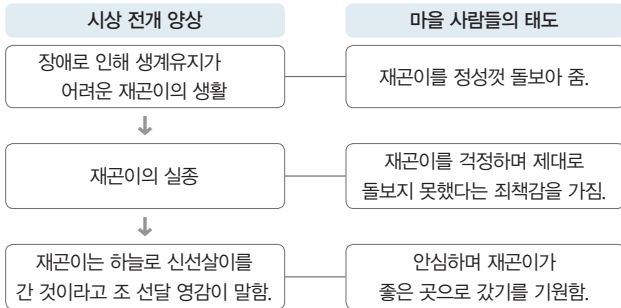
## 7a 서정주, '신선 재곤이'

[해제] 이 작품은 장애를 지닌 '재곤이'를 배려하고 보살피는 질마재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을 그리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앓은뱅이로 자신의 생계조차 책임지기 어려운 재곤이를 배려하며 정성껏 보살피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재곤이가 갑자기 사라진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인정이 바닥났다고 여겨 찬벌을 받게 될까 봐 걱정을 한다. 그러나 재곤이가 하늘로 신선살이를 하러 간 것이라는 조 선달 영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동조하며 재곤이의 실종을 '죽음'이 아닌 '재생'과 '부활'로 보는 상상력을 드러내게 된다.

[주제] 소외 계층을 보살피는 공동체의 따뜻한 마음

[작품 핵심 보기]

• 시상 전개 양상과 마을 사람들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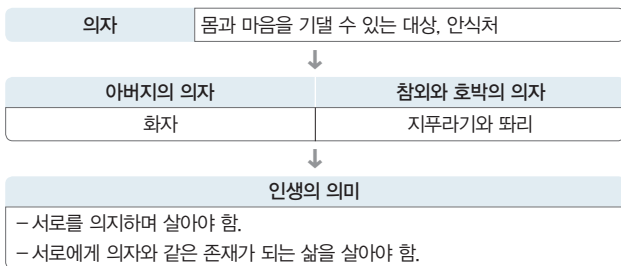
## 4 이정록, '의자'

[해제] 이 작품은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화자가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자는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 고달픈 삶을 사는 연약한 존재들에게는 나름의 안식처가 존재함을, 그리고 그러한 존재들은 결국 그들끼리 서로를 의지하고 사는 처지임을 알게 된다. 더 나아가 인생이란 서로에게 의자와 같이 편안한 존재가 되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주제]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의미

[작품 핵심 보기]

• '의자'의 의미와 주제 의식



1 (가)에서는 재곤이가 하늘로 신선살이를 하러 간 것이라는 조 선달 영감의 말과 이에 동조하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재곤이가 좋은 곳으로 갔기를 바라는 마을 사람들의 기원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제시하여, 화자가 어머니의 말을 통해 얻은 인생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질마재'라는 특정 공간과 그곳의 사람들이 재곤이가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으나, (나)에서는 특정 공간이나 그에 대한 인물의 지향을 확인하기 어렵다.

② (가)에는 재곤이에 대한 소개와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먼저 제시되고, 시간 이 흐른 후 어느 날 일어난 재곤이의 실종이라는 사건이 제시되며, 이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화자가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집중하여 내용이 진술되고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가)에는 재곤이라는 인물의 과거에 대한 서술과 현재 상황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추측이 드러나 있고, (나)에는 어머니가 일상생활 속에서 얻은 깨달음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인물의 현재 상황을 부각하여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⑤ (가)는 '있었습니다'라는 서술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인물의 의지가 드러나 있지 않다. (나)는 특정한 서술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2 <보기>의 화자는 (가)와 마찬가지로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채 재곤이와 마을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을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하고, 이를 전달하는 제3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는 반면, <보기>에서는 실종된 재곤이에 대한 조 선달 영감의 말이 가장 먼저 나타나 있고 재곤이의 실종과 조 선달 영감의 말에 동조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 사건의 제시 순서가 바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는 산문시이지만, <보기>에서는 행과 연을 나누어 사건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종결 어미를 '-습니다'의 경어체를 사용하여 불특정 청자에게 화자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으나, <보기>에서는 '먹고살았다', '수군댔다', '가벼워졌다'라는 일반적인 서술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⑤ 재곤이의 실종과 그 원인에 대한 조 선달 영감 및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나는 (가)의 내용은 <보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3 ㉠에서 '그것들'은 '참외'와 '호박'으로, 어머니가 이러한 사물들에게도 '의자'를 내주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사물들 역시 안식처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들'도 식구라고 인정하는 것은 온 세상의 만물에게 공감과 연민이 필요하다는 어머니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관심의 범위가 온 세상에서 식구로 좁혀지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어머니의 말씀을 '말씀'이 아닌 '소식'으로 제시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말씀이 자신에게 새로운 깨달음,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알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허리가 아프게 된 것을 계기로 어머니는 어디서든 아픈 허리를 쉬일 '의자'를 찾게 되었고, 이로써 '의자'가 지닌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러한 '의자'의 의미를 통해 어머니는 서로에게 '의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③ 생전 아버지에게 화자가 '좋은 의자'였다고 산소에 다녀올 것을 권유하는 어머니의 말씀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역시 여전히 '의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다.

⑤ 산다는 것이 별게 아니라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 의자 몇 개 내놓는' 것이라고 한 어머니의 말씀에서, 화자는 인생이란 서로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 주며 서로를 의지하고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 기본 흰 바람벽이 있어 / 흥부 부부상

본문 72~74쪽

1 ⑤ 2 ③ 3 ⑤

개념 확인 문제 1 회상(추억), 내면 2 웃음

**개념 연계 개념 14 문학과 문화의 소통** : 문학 작품은 예술 분야의 기법이나 소재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매체로 변용되며 소통한다. (가)는 화자의 내면을 벽에 비치는 영상으로 형상화하고 있고, (나)는 고전 소설의 인물을 차용하고 있어 (가)와 (나) 모두 형상화 방법이 특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각 작품을 다른 예술이나 매체로 어떻게 변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가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해제]** 이 작품은 가난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화자가 자기 위안에 이르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방의 '흰 바람벽'에 보이는 것들을 '쓸쓸한 것', '외로운 생각'으로 표현한다. 여기에는 '어머니'와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화자는 자신이 외롭고 쓸쓸한 것은 하늘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면서 자기 위안을 얻고 있다.

**[주제]** 외롭고 쓸쓸한 자신의 삶에 대한 위로와 극복 의지

**[작품 핵심 보기]**

· 화자의 상황 인식과 자기 위안

흰 바람벽에 비친 현재 상황	- 가난하고 쓸쓸한 생활 - 그리움의 대상과 멀리 떨어져 있음.
현재 상황의 이유	자신은 하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기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위안을 얻음.

## 나 박재삼, '흥부 부부상'

**[해제]** 이 작품은 고전 소설 '흥부전'에서 소재를 차용하여 가난 속에서도 소박한 행복을 잃지 않는 흥부 부부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웃음'을 통해 '황금'이나 '벼 이삭'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 부부 간의 사랑이며, 물욕 이전의 순수함이 진실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가난한 삶을 서로에 대한 위로와 사랑으로 극복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주제]** 가난한 삶의 애환과 소박한 행복

**[작품 핵심 보기]**

· '흥부 부부'의 삶의 모습

- 안분지족의 삶 -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는 삶 - 가난의 한을 사랑으로 이겨 내는 삶	→ 소박하지만 진실된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상
--	--------------------------

1 (가)는 '이 흰 바람벽에 ~다'와 같은 유사한 문장 구조를, (나)는 1연의 3행과 4행에서 '~이 문제리'와 같은 유사한 문장 구조를, 1연과 3연에서 '~해야려 보라'와 '그것이(은) 확실히 문제로 다'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여 시상에 통일성을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고전 소설 '흥부전'을 소재로 하지만, (가)는 고전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② (가)에는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없는 '어머니'와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으나, (나)에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와 (나) 모두 논리적 모순 속에 진리를 담은 역설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나)에서는 화자가 '-라'라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며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나, (가)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2 [C]는 화자가 상상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룬 단란한 가정의 모습을 구체화한 영상이다. [C]가 한 가정의 따뜻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B]의 분위기와 대조적이기는 하나, 화자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서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희미한 불빛, 좁고 누추한 방, 낡은 옷의 모습이 그대로 구현되어 화자의 가난한 처지와 쓸쓸함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B]에서는 화자와 떨어져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어머니'의 삶이 조망되어,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애뜻함을 드러내고 있다.  
④ [D]에서 '글자들은' 화자가 가난하고 쓸쓸한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인식하는 내용으로, 이는 [A]에서 영상을 통해 제시된 가난한 삶에 대한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생각'을 구체화한 것이다.  
⑤ [E]에서는 쓸쓸함을 느끼던 화자가 '글자들'을 읽고 자기 위안을 얻는 과정이 드러나므로 이를 남자의 표정 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3 1연을 보면 '웃음살'은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 가르기 전에 건넌' 것이므로, 물질적 풍요와 상관없이 이들은 이미 소박한 행복에 기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박덩이'를 가른 후에야 비로소 '본(本)웃음 물살'을 되찾았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금(金)'과 '황금(黃金) 벼 이삭'은 문제가 아니라는 표현은, 그것들이 '흥부 부부'가 소박한 행복을 이루는 데 관련이 없는 이질적인 소재임을 의미한다.  
②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들어야 하는 '손발 닳은 처지'에 놓인 부부의 모습에는 그들의 생활이 고달픈 것이라는 화자의 판단이 담겨 있다.  
③ '거울 면(面)'을 보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흥부 부부'를 동질성에 기반하여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로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면(面)에 온 구슬'은 서로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된 부부의 눈물로, 이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는 배려로 인한 것이다.

## 심화 납작납작-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 세한도

본문 75~77쪽

1 ⑤ 2 ③ 3 ②

**개념 연계 개념 14 문학과 문화의 소통** : 문학과 문화의 소통은 특히 미술에서 문학 작품으로의 변용에서 자주 이루어진다. (가)는 박수근의 그림을 제재로 하고, (나)는 김정희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처럼 (가)와 (나)는 모두 그림에서 문학 작품으로의 변용이 나타나므로, 그림에서의 표현 기법이 시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는지에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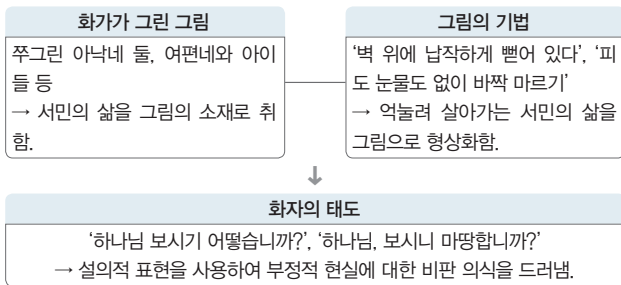
## 71 김혜순, '납작납작-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해제] 이 작품은 박수근 화백의 그림 '세 여인'의 이미지와 화법이 지닌 특성을 시적인 모티프로 활용하여 가난한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그려 내고 있다. 가난한 서민에 대한 연민을, 시 속의 화가를 화자로 설정하여 '하나님'에게 묻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연에서는 화가의 작업 과정을 제시하면서, 화자가 자신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표현한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냐는 질문을 던진다. 2연에서 화자의 시각은 1연의 '아낙네 둘' 혹은 '여편네와 아이들'에서 '천지 만물'로 확대되고 있다. 화자의 눈에 비친 '천지 만물'은 감정 표현과 생명력을 상실하고 바짝 마른 채로 한 줄에 꿰여 한없이 펼쳐지고 있을 뿐이다. 화자는 이러한 천지 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에게 과연 이것이 '마땅한 것인가'를 물음으로써, 이러한 세상의 모습이 마땅하지 않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달픔과 연민

[작품 핵심 보기]

• 그림을 보는 화자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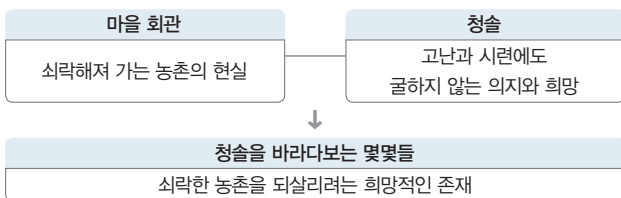
## 나 고재중, '세한도'

[해제] 이 작품은 추사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歲寒圖)'에 묘사된 '소나무'의 의미를 '청솔'로 형상화하여 부정적 상황을 견디는 의지와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시의 공간은 '날로 기우뚱해 가는 마을 회관'으로 상징되는 쇠락해 가는 농촌이며, 농촌에 가해지는 시련과 고난을 함께 겪으며 아파해 온 대상으로 '청솔'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쇠락해 가는 이 공간에는 '꽃꽂이' 서서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이 있고, 이 '청솔'을 바라보며 '난장 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는 '몇몇들'이 있다. 화자는 이들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면서, 결국 이들을 통해 반드시 도래하고야 말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쇠락해 가는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

[작품 핵심 보기]

• 시어의 상징적 의미



1 (가)의 각 연의 마지막 부분에는 평서형 종결 어미에서 의문형 종결 어미로의 변화가 나타난다. 의문형 어미를 통한 설의적 표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하지 않은 세상이라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는 1~3연의 평서형 종결 어미에서 4~5연의 명령형 종결 어미로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 '몇몇들'과 '청솔'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절대자인 '하나님'이라는 특정한 청자를 설정하여 질문하는 형식으로 서민들의 고달픈 현실을 비판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특정한 청자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 ② (나)는 6연에서 화자인 '나'가 작품 표면에 드러나 있으나, (가)에는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가)와 달리 (나)에서는 '청솔'을 의인화하여 농촌에 가해지는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견뎌 내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안타까움을 드러낸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2 '입술'도 '표정도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와 같은 시구는 화자가 자신을 포함한 '천지 만물'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어떠한 감정이나 생명력을 드러내지 못한 채 바짝 말라 있는 '천지 만물'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세상에 짓눌려 있는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일 뿐, 하나님(☉)의 비정함을 구체화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 내어'는 화자가 자신의 그림(㉠)을, '아낙네 둘', '여편네와 아이들'과 같은 세상(㉡)의 일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② '한 며칠 눌렀다가', '납작하게 뻗어 있다'는 화자가 그림(㉠)을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입체적인 대상을 평면적으로 표현한 화법을 통해, 세상(㉡)의 모습이 삶의 무게에 억눌려 있다고 본 화자의 판단을 엿볼 수 있다.
- ④ '천지 만물'은 세상(㉡)에 존재하는, 화자를 비롯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데, 이들이 모두 납작해져 한 줄에 꿰여 있다는 표현은 세상(㉡)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집약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화자는 그림(㉠)에 대해 하나님(☉)에게 '보시니, 마땅합니까?'라고 질문하며 '마땅하지 않다'는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하나님(☉)이 만들어 낸 세상에 대해 항변하고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그림 '세한도'에 대한 <보기>의 설명에 의하면, '한 채의 집'은 꽃꽂함을 잃지 않는 화가의 기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나)의 꽃꽂이 서 있는 '청솔'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나)의 '마을 회관'은 이 '청솔'과는 대조적으로 '날로 기우뚱해 가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쇠락해 가는 농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소재이다.

[오답 풀이]

- 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그림의 '소나무와 잣나무'는 (나)에서 시련과 고난의 현실을 이겨 낼 수 있는 꽃꽂이의 지를 상징하는 '청솔'로 구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그림의 '나무'들은 부정적 현실을 이겨 내는 굳은 의지와 생명력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의 화자는 이러한 의미를 '청솔'에서 발견하고 이를 아침에 떠오르는 '꼭두서니빛'에서 재확인하고 있다.
- ④ 화자에게 있어 유배지에서의 상황은 (나)의 화자에게 쇠락해 가는 농촌 현실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세한(歲寒)'은 설 전후의 추위라는 뜻으로, 매우 심한 한겨울의 추위를 이르는 말이다. 이는 (나)에서 '덧바람', '삭바람', '까막까지 얼어 죽는 이 아침'과 같은 시구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회

본문 80~81쪽

01 ① 02 ⑤ 03 ④ 04 ④

[01~04]

(가) 김광규, '서울 평'

**[해제]**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섬'처럼 남겨진 공간에서 살아가는 평들의 삶을 통해 자연과 인간, 문명과 인간을 성찰하고 있는 작품이다. '지하철 공사', '아스팔트길', '쓰레기터' 등으로 표시되는 현대 물질문명의 공간에서 평들은 '식막한 돌산'에 갇혀 인간이 남긴 음식을 찌꺼기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평들은 인간 문명에 의해 파괴된 자연이면서 동시에 자연을 잃고 갇혀 살아가는 현대 도시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및 도시인의 비애

(나) 배한봉, '자연도서관'

**[해제]** 이 작품은 '늪'을 배경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력,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방식과 윤리적 태도 등을 성찰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늪'은 다양한 생명체들이 공존, 공생하는 곳이며, '신'마저도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특히 '자연도서관'에서의 생명체들은 '독서'를 하며, 독서의 대상은 '바람이 풀어놓은 수만 권 책'이다. 이처럼 모든 존재들이 상생하고 소통하는 '자연도서관'에 들기 위해서 인간은 '셋별'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주제]** 자연의 생명력과 상생의 원리

(다) 생태시론

**[해제]** 생태시의 개념과 그것이 다루는 주요 주제들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생태시는 산업화와 근대화로 대표되는 현대 문명사회를 배경으로, 현대 물질문명의 폭력성과 그로 인한 생태적 위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작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주제]** 생태시의 정의 및 특징

**01** (가)에서 화자는 쓰레기터에서 먹이를 구하며 도심에 갇혀 사는 평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산다', '먹는다'와 같은 현재형 진술로 표현하고 있고, (나)의 화자도 바람에 흔들리는 부들과 창포의 모습, 그 주변의 물방개나 소금쟁이의 모습, 백로와 물닭들의 헤엄치는 모습 등 늪에 사는 생명체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독서중이다', '받아주는', '펼치기도 한다', '듣는다', '침범거린다'와 같은 현재형 진술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나)의 '부들과 창포', '물방개나 소금쟁이', '갯버들', '백로나 물닭 가족' 등은 인격적 존재로 그려져 있으나 (가)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찾을 수 없다.
- ③ (가)와 (나)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정서적 변화가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가)에는 평들의 모습을 통해 파괴된 자연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반어적 어조를 찾기는 어렵다. (나)는 자연의 생명력과 공존·공생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뿐 반어적 어조는 드러나 있지 않다.
- ⑤ (나)에는 '설령설령'과 같은 음성 상징어, '침범거린다'와 같은 음성 상징어에서 비롯된 동사가 쓰여 대상의 생동감과 생명력을 살리고 있으나, (가)에는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02** (가)에서 화자는 '식막한 돌산'에 갇혀 버린 평들의 모습과

'지하철 공사'로 혼잡한 / 아스팔트길'을 연결하여 현대 물질문명에 의해 파괴된 자연 생태계와 인간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늪'을 '부들과 창포', '물방개나 소금쟁이', '갯버들', '백로나 물닭 가족' 등의 여러 생명체들과 인간, 심지어는 '신' 까지도 공존, 공생하는 생명의 공간으로 그리고 있다. 따라서 (나)는 생태 위기에 대한 대안의 모색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를 현대 물질문명에서 비롯된 반자연적, 반생명적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로 볼 수 있지만, (나)가 그 결과에 대한 고발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 ② (가)는 생태계의 파괴에 주목하고 있지만, (나)는 생태 위기의 심화보다는 생태 위기에 대한 대안에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생태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나)보다는 (가)가 문명 비판적 태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④ (다)에 따르면 (나)는 공존과 공생이라는 자연과 생명의 원리에 대한 탐구로 볼 수 있으나, (가)에서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03** (가)에는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으나, <보기>에는 구체적인 배경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자연을 파괴하는 현대의 물질문명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을 '평'을 통해 우의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보기>에서는 '산성늪'을 의인화하고 있지만 우의적으로 주제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 ② (가)는 도시에 갇혀 비참하게 사는 평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 이에 대한 화자의 절망은 드러나 있지 않으나, <보기>에는 '몸과 마음의 서까래 / 몇 개의 소리 없이 내려앉는다', '하늘은 저렇게 무너지는 것이다'에 심각한 환경에 대한 화자의 절망이 나타나 있다.
- ③, ⑤ (가)는 개발된 '홍제동 뒷산'이나 '지하철 공사'로 혼잡한 / 아스팔트길'에서, <보기>는 '우뚝한 굴뚝', '은색의 바퀴들', '무서운 속도'로 표시되는 현대 문명에 의해 산성늪이 내리는 것에서 산업화로 인해 파괴된 자연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가)와 <보기>에는 모두 자연을 파괴한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 있다.

보기 | 작품 분석

이문제, '산성늪 내리네'

**[해제]** '산성늪'을 통해 현대 문명의 발달로 인한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자연은 참음성이 없어 인간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며 '하늘이 저렇게 무너지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인간이 환경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고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현대 산업 문명에 대한 절망과 비판

**04** ㉠에서 '수만 갈래 길'과 '무수한 언어들'은 생명의 보고인 '늪'에서 생겨나는 무수한 삶의 방식과 가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신' 역시 '늪'에서 '독서'를 하는 존재로, 읽는 행위를 통해 '늪'의 다른 존재들과 소통하는 존재로 그려져 있다.

오답 풀이

- ① '홍제동 뒷산'은 '지하철 공사', '아스팔트길' 등으로 상징되는 현대 물질문명에 의해 파괴된 '식막한 돌산'이 되었다.
- ② '식막한 돌산'에 갇힌 평들은 '서울 시민들'처럼 '갑갑하게' 산다. 반자연적이고 반생명적인 삶의 방식으로 인해 자연은 물론 인간들마저도 심각한 생태적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늪'은 '창랑의 책'이 된다. 책이 정신적 자산의 보고임을 고려할 때 '늪'은 모든 생명체들이 공생하는 공간이자 동시에 정신적 가치의 저장고임을 알 수 있다.
- ⑤ '늪'은 수많은 생명들을 책으로 풀어놓은 '자연도서관'이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공간에 들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자연과 생명을 닮은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 '샛별'은 이러한 생태 윤리 의식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 02 회

본문 82~83쪽

01 ⑤ 02 ④ 03 ③

### [01~03]

#### (가) 장영희, '약속'

[해제] 이 글은 글쓴이의 개인적 체험을 통해 이끌어 낸 삶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 수필이다. 글쓴이는 어린 시절 고통스러웠던 기억과 찬란하고 아름다운 기억 두 가지에서 얻어 낸 삶에 대한 이미지를 대조적으로 제시하며 어둡고 무서운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전해 주고 있다.

[주제] 고통스럽지만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간으로서의 삶

#### (나) 문태준, '맨발'

[해제] 이 작품은 어물전 개조개의 모습을 통해 부처의 맨발을 떠올리고, 이를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으로 확장시킨 시인의 통찰이 엿보이는 시이다. 개조개의 속살인 맨발을 관찰하면서 고단하고 힘들었을 개조개의 삶에 연민을 느끼고, 이를 통해 인간의 고단한 삶에 대한 연민과 위로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어물전 개조개의 모습을 통해 들여다본 인간의 삶의 모습

01 (가)는 '괴물 같은 삶'과 '빛 동그라미처럼 찬란할 수 있는 삶'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삶이란 고통스러우면서도 고귀한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옴막 같은 집'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고단한 삶의 단면을 나타내면서 그런 삶에 대한 화자의 연민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는 방 안에 대한 묘사가 드러나 있지만, 이를 통해 글쓴이의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② (나)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고 있지 않다.
- ③ (나)에는 계절의 흐름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가)에서는 '밝은 빛 동그라미'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생명의 경이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나)에는 '아─' 하는 울음소리와 같은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생명의 경이로움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02 '나'는 '괴물같이 어둡고 무서운 이 세상' 속에서도 사랑, 이해 등의 '약속'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삶이 가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나'가 삶에 대한 ㉠과 같은 인식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명이 가장 귀중한 가치를 가진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화자는 개조개가 속살을 거두어 가는 행위를 보며 사람의 '맨발'을 떠올리고, 더 나아가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는 사람의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화자는 이러한 모습에서 연민을 느낄 수는 있으나,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단서는 찾아볼 수 없다.

## 03 회

본문 84~86쪽

01 ③ 02 ② 03 ① 04 ⑤ 05 ② 06 ④

### [01~03]

#### (가) 정일근,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

[해제] 이 작품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차려 주시던 '두레밥상'과 이진투구의 이수라장이 된 현실의 '세상의 밥상'을 대조하여, 유년 시절과 같은 사랑과 나눔의 세상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형상화하고 있다. '모난 밥상'은 현대 사회의 경쟁으로 왜곡된 삶의 풍토를, '둥근 밥상'은 공존과 포용, 또는 사랑과 조화의 정신을 상징하는데, 화자는 '두레밥상'에 앉아 밥을 먹듯이 여러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고 있다.

[주제] 공동체적 삶의 회복에 대한 염원

#### (나) 신동엽, '봄'

[해제] 이 작품은 '봄'과 '겨울'이라는 대립적 의미의 시어를 통해 분단 극복의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분단 현실을 의미하는 '겨울'이 '바다와 대륙 밖'에서 온 것으로 보고, '봄'은 '남해'나 '북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디딘 / 아름다운 논밭', '우리들 가슴속'에서 온다고 보고 있다. 이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는 진정한 '봄'이 오지 않는다는, 즉 통일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강조한 것이다.

[주제] 자주적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

01 (가)에서는 대조적 의미를 지닌 '두레밥상'과 '모난 밥상'을 대비하여 공동체적 삶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 (나)에서는 '봄'과 '겨울'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들을 대조적으로 사용하여 자주적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는 '않는다', '옴튼다', '옴트리라' 등의 표현에서 화자의 단호하고 결연한 어조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가)는 과거의 삶을 회상하며 공동체적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을 뿐, 단호하고 결연한 어조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② (가)와 (나)에는 모두 공간의 대비가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상이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 ④ (가)는 '어머니의 두레밥상'을 이상적인 것으로 제시하면서 오늘날의 '세상의 밥상'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상과 현실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도 평화적 통일을 의미하는 '봄'을 이상적인 것으로 제시하면서 현재의 '겨울(쇠불이들)'은 이제 봄 '봄'에 의해 극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상과 현실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가)에서 '어머니의 두레밥'을 '꽃밭'으로, (나)에서 자연의 '봄'을 인간의 속성인 '너그러움'을 지닌 것으로 표현한 것과 같이 (가)와 (나)는 자연의 이미지가 인간의 이미지에 상응하고 있으나, 자연과 인간이 대비되어 나타나 있지 않다.

02 (가)에서의 사상 전개로 보아 [A]는 '어린 시절'의 '어머니의 두레밥상'을 회상하는 장면이고, [B]는 현재의 '세상의 밥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부분이다. 이를 바탕으로 [C]에서는 '어머니의 두레밥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사상의 흐름으로 볼 때, [A]에 잃어버린 '어린 시절'은 회복될 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이 깔려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A]에서 어머니의 '두레밥상'은 화자가 받아먹고 싶은 대상이자 그리워하는 시적 대상으로, 어머니가 파우시는 '사랑의 꽃밭'으로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다.

③, ④ [B]에는 [A]의 '제비새끼처럼', 어머니의 '두레밥상'을 '착하게' 받아먹던 사람들이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 버리고, '하이에나'처럼 떠돌며, '남의 밥상'을 훔쳐 버리기도 하는 상황이 형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은 [C]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 '싶다'를 통해 강조되고 있다.

⑤ 이 작품 전체의 핵심 이미지는 '어머니의 두레밥상'이다. 사상 전개로 보아 [A]에 나타난 회고와 소망은, [B]와 같은 현실의 문제적 상황에 대한 성찰을 거쳐 [C]에서 그것의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C]는 [A]의 반복적 변형을 통한 의미의 심화로 볼 수 있다.

**03** '봄은 /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 오지 않는다'에서 '남해'와 '북녘'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상징하는 '봄'이 오지 못하는 곳으로서 '쇠불이들'과 함께 외부적 대상을 상징한다. 또한 <보기>에서 신동엽의 작품에서는 대지 이미지가 주로 한반도를 상징한다고 하였으므로 '남해'와 '북녘'을 대지 이미지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② '제주'에서 '두만'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논밭'과 '삼천리 마을'은 봄의 눈짓이 움트는 우리나라를 뜻하므로 대지 이미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④ '봄의 그 눈짓'이 2연의 '아름다운 논밭'과 3연의 '우리를 가슴속'에서 움튼다고 했으므로, '봄'은 식물 이미지의 변형이며, '움튼다'로 연결되는 흐름으로 볼 때 대지, 신체, 식물 이미지들이 서로 내적인 연관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3연에서 '눈보라'는 겨울이 '바다와 대륙 밖'에서 몰고 온 대상이므로, 이는 광물 이미지인 4연의 '쇠불이들'과 함께 외부적 대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04~06]**

**(가) 이성부, '밤'**

**[해제]** 이 작품은 부정적 현실을 직시하고 공동체적 연대감을 통해 고난과 시련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밤'은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거대한 어둠', '끝없는 형벌'에서 보듯이 '밤'은 암울한 현실을 상징하지만, '불빛'과 '사랑'을 키워 주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잠이 들지 말고, 든든하게 결합하여 '죽음'에 맞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공동체적 연대감을 통한 고난과 시련의 극복

**(나)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해제]**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의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밤비', '어둠'의 부정적 이미지와 '등불', '아침'의 긍정적 이미지를 대비하여 무기력한 자신의 삶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반성하던 화자가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어두운 시대 현실 속에서의 자기반성과 현실 극복의 의지

**04** (가)에서 화자는 '밤'으로 상징되는 암울한 현실에서 잠들지 말고 든든하게 결합하여 '죽음'에 맞서야 한다고 말하며 공동체적 연대감을 통한 고난과 시련의 극복 의지를 단호하고 단정적인 목소리로 표현하고 있다. (나)는 부끄러웠던 과거의 삶에 대한 회고와 절망감으로 갈등하던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을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지는 과정을 자기 성찰적인 목소리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모두 암울하고 부정적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가)의 화자

는 부정적 현실을 공동체적 연대감을 통해 극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를 반성하며 성찰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화자가 현실을 내면적 성장의 계기로 삼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가)는 비장한 분위기가 드러나고, (나)는 침울한 분위기가 드러나지만, (가)와 (나) 모두 냉소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③ (가)에는 부정적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해 내고자 하는 현실에 대한 강한 대결 의지가 드러나 있다. (나)에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미약하나마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희망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극적 회피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가)는 '~야 한다'는 당위적, 의지적 진술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토대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는 화자가 '시대처럼 올 아침', 즉 반드시 도래할 희망찬 미래를 기다린다는 점에서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05** (가)에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의미하는 '밤'은 1연에서는 '거대한 어둠'으로, 2연에서는 '끝없는 형벌'로 변주되고 있다. (나)에서 '밤'은 화자의 암울한 현실 인식과 내면을 동시에 나타내므로 화자의 쓸쓸한 심정을 고조시키는 '밤비'는 '밤'의 이미지를 변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안'은 현재의 삶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을 하던 화자가 현실의 자아를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이므로 '밤'과 동일한 이미지의 변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밤'은 공동체적 연대감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의미하고, (나)에서 '밤'은 화자가 자아를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므로 모두 시대 현실을 암시하는 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다.

③ (가)에서 화자는 '승리에 굶주린 그 고운 얼굴'을 보아야 한다고 한다. 이는 '밤'으로 인해 생겨난 굶주림이다. 마찬가지로 2연의 '목마름'은 승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밤'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나)에서 '밤'은 어두운 시대 현실을 의미하므로 화자가 자신의 현재 삶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배경이 되며, 아울러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④ (가)에서 '밤'은 '거대한 어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불빛'은 그 밤의 어둠을 몰아내는 희망으로 설정되어 있다. (나)에서도 '밤'은 '어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등불'은 어둠을 몰아내는 현실 극복의 의지, 희망으로 설정되어 있다.

⑤ (가)에서 화자는 '잠이 들면 안 된다', '죽음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한다. 이는 아직은 부정적인 현실을 '똑똑히 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에서 화자는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데, 이는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가)와 (나)에 화자가 '밤'에 대해 취하는 대응 행위로 볼 수 있다.

**06** ㉠과 ㉡은 ㉢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의 '잠이 들면 안 된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는 의미를, ㉡의 '똑똑히 우리도 보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약화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오답 풀이**

① '우리는'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의 화자는 공동체적 연대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다.

② ㉠~㉢은 '우리도(는)'와 '아직(은)'의 위치를 달리하여 변화를 주고 있다.

③ '우리는' '쓰러져 죽음을 토해 내는 사람들', '사랑을 보듬고 울고 있는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과 공동체적 연대감을 갖고 있다.

⑤ ㉢은 고난과 시련 중에도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든든하게 연대를 맺고 있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화자는 이와 같은 공동체적 연대감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 ㉢과 같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